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선교회지 SEP 2012 '가을' 호 통권 12호

Universal Care

西 서 進 진

실크로드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

www.cyworld.com/universalcare

2012.09.08.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는 의료 및 교육, 찬양 등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선교사를 후원하고, 열방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이 되기 위하여 결성된 선교회입니다

발행인 / 정진호

편집/ 편집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2

트리플타워 A동 303호

Tel 032) 329-2875

Fax 032) 329-2879

www.cyworld.com/universalcare

발행일 : 2012.09.08

표지설명



몽골 털고히트 교회에서 바라 본 하늘. 드넓게 펼쳐진 땅과 맞닿은 하늘의 기세가 마치 성령의 바람이 몰아 치기 직전의 모습처럼 느껴진다

Contents

01 Prologue 북방선교! /정진호

실크로드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

03 주님의 마음/원두우 선교사

06 이스라엘의 회복 /송성규 목사

12 복음의 서진 운동과 선교전략 /황필남 선교사

25 복음의 서진인가? 확장인가? /김영제 목사

32 실크로드 복음화와 우즈베크의 영적의미 /김아굴라선교사

36 U 국 이야기 / 김예비

39 중국 실크로드 - 백 투 예루살렘 / 강다니엘 선교사

Universal Care 후원 선교사 소개 소개

43 김아굴라, 최브리스길라 선교사

선교논단 I

44 몽골이 깨어나고 있다! /황필남 선교사

47 선교사의 약함 /정태화 선교사

선교지에서

51 러시아 로스토프 나다 누 /김우섭 선교사

55 성경 번역 선교회(G.B.T) /엄천영, 안수아 선교사

61 B국 /주바울 선교사

64 남아공 배성호 선교사

71 필리핀 신동주 선교사

71 선교사 기도제목 & 선교회 소식

81 Universal Care 는?

Prologue

西서 進진

실크로드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

정진호

월드와이드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연세U치과 원장



중앙아시아 U국을 섬기는 선교사님을 만나고, 새삼 그 땅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강력한 대적의 진을 체감하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사모해야 할 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옛날 실크로드의 중심으로 서양과 동양을 이어주었던 다리와 같은 U국을 긴박한 영적인 호흡으로 바라 보게 됩니다. 소화되지 않고 탁 걸려버린 떡 덩이처럼 복음의 흐름을 막고 있는 그 곳은 우리 Universal Care가 밟아야 할 '산지'일 것입니다.

제 13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원두우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 시금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해 목상하고 이스라엘에 대해 애끓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그 땅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회복의 중요한 또 하나의 길, **실크로드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거룩한 **서진**에 대해 이 책을 통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그 거룩한 서진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 지길 소원합니다. 주가 행하시는 거룩한 선교의 역사에 증인으로 쓰임 받을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동으로, 북으로, 남으로, 그리고 서쪽으로도 흐르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따라 그토록 사모하는 땅 예루살렘에 이르길 소원합니다. 그 장엄한 행진에 몽골족이 쓰임 받아 선봉에 서길 소원합니다. 중국인들이 그들의 태생부터 외쳤던 100만 선교사들이 그 땅으로 달려가길 원하고, 남과 북이 통일된 한민족이 그 강렬한 행진에 불을 붙이는 발화점이 되길 원합니다.

실크로드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제13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너는 가서
이스라엘에게 외치라!”



강사 : **원 두 우 선교사**

이스라엘선교사 / 예루살렘교회 담임목사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 선교부 파송 선교사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졸업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일시 : 2012년 **9월 8일 (토)** 오후 5시30분

장소 : 월드와이드교회 6층 로뎀홀

문의 : 정진호 010 9012 7379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름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

(이사야 61 : 6)

aish.com

실크로드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

주님의 마음

원두우 목사
이스라엘 선교사
예루살렘 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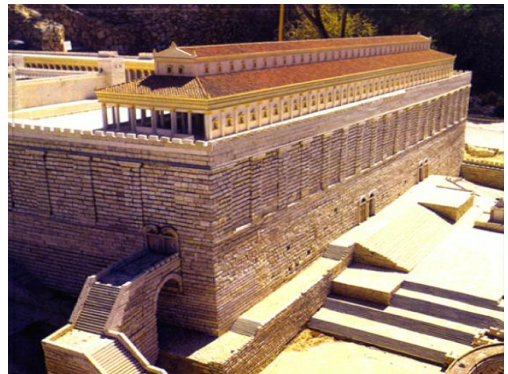


사람을 만나서 '존중과 무시'의 갈림길에 설 때가 더러 있다. 스치는 사람은 무시하지만, 알고 지낸 사람은 존중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따금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대할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유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성전 남쪽에는 '로알 스토어(Royal Store)'가 있다. 여기에서 산헤드린이 모였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Tyrian silver)을 하기도 했고, 희생제물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 예수님

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분통이 터진 주님의 특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된다.



'에레모스 굴(Eremos Cave)'은 가버나움에서 그리 멀지 않다. 전날 많은 사역으로 피곤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은 이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에레모스 산'에 가서까지 부득이하게 주님께 부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서는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무리들이 유월절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며 내리신 결정이었다. 주님은 갈릴리 모든 곳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리라.

벧바게에서 끌어온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감람산 꼭대기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오시던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

다. 그리고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목 놓아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위해 올라고 하셨다.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에 품으려는 암탉처럼 안타까운 어미의 마음일 것이다.



식사조차 못할 만큼 바쁜 사역을 마친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신나게 보고를 했다. 가만히 듣고 계시던 주님은 조용한 곳으로 가



서 쉬자고 한다. 배를 타고 '타브가(Tabgah)'로 향했다. 이곳은 조용하고 푸른 잔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기도 많이 잡히고, 또한 시원한 샘이 일곱 개나 있어서 휴가지로서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배 떠나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하더니 먼저 와 있다. 산통이 깨졌다. 더구나 성인 남자만 오 천명이 넘는다. 피곤하고 배도 고파서 말할 힘조차 없었던 제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숫자다. 그러나 주님은 휴가 온 것도 까맣게 잊으시고 날이 저물어 가는 것도 모르신다. 참다못해 말씀 드렸는데 호통을 치신다.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정어리 두 마리와 빵 다섯 덩어리를 간신히 구해서 갔다 드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주님의 손에서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적이....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 들이면서 비로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듯싶다.



제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휴식과 음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셨다. 그러나 쉬는 것을 뒤로하고 음식을 주라고 소리 지르면서까지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었다.

자기자신을 '인정(esteem)'하고 사람들을 '존중(respect)'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honor)'할 때 생명이 역사한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주야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

실크로드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

이스라엘의 회복

송성규목사

일산명성교회 담임,

KDM선교회총무,

세이브존백화점 예배담당목사



. 지금은 말세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세에는 **일반적 징조**(지진, 미혹, 환난, 온역, 전쟁, 기근)와 **특별한징조** 4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징조 4가지는 **첫째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마 24:14), **둘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경제적 어려움과 환난**(단 7장, 계 13장), **셋째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재건**(단 9장), **넷째는 아말겟돈이라고 하는 큰 전쟁**(단 10.11.12장, 계16장) 등입니다. 이 일들이 있을 후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더불어 이 땅은 종말이 되고 새하늘과 새땅이 도래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론이란 말보다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

성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종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땅이 도래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계 21:6-7). **완성론**이라고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이 4가지 큰 사건들은 순차적이라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말세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세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예언되었고, 성전이 지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빌론 포로시대 후 귀환과 성**

전건축이고, 둘째는 로마에 의한 멸망 후 전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의 이스라엘귀환이며, 셋째는 대한난을 통과하면서 회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1)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말세의 징조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셨습니다(마24:32-34, 눅21:29-31).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나무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이 말세의 여러 징조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이스라엘민족이 본토로 돌아와 국가가 회복되면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이스라엘민족은 대한난을 통과하며 예수님을 구원주로 시인하고 회개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34-36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인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 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덮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세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성도는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언

제든지 마음이 방탕과 술취함과 인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참신앙을 잃고 타락해 말세의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해야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서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2)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구약의 예언

신명기 30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땅에서 쫓겨나 이민족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엔 하나님을 불신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고 신약시대엔 예수님을 불신해 전세계에 흩어졌다가 1948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와 천년왕국에 관한 장입니다(사 11:11-12).

하나님이 말세에 두 번째로 손을 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전세계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적 회복은 말세에 큰 징조가 됩니다.

이사야 51장 11절 "그러므로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이요, 또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이다".

이사야 54장 7절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니라".

예레미야 30장10-11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비로 돌아와 평안할 것이고 이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바로잡을 것이며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23-28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정결한 물로 더러움과 우상숭배를 제거할 것이고, 새 마음을 주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며, 성령을 부어 진리를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무덤 속의 마른 뼈처럼 소망 없이 전세계에 흩어져 핍박 받던 이스라엘 민족은 본토귀환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뼈들이 모여 힘줄과 살이 덮히고 숨을 불어넣어 큰 군대가 되듯이 힘 없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모여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말세에 회복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므로 다시 나뉘이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범죄로 더럽혀지지 않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3)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다니엘서의 예언

A.계시의 배경

다니엘 9장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 제국이 등장한 후에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본 장의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는 메대의 마지막 왕이며 고레스의 장인

인 키악사레스 2세(CyaxaresII)를 가리킵니다). 그는 고레스의 배려로 바벨론에서 2년 간의 통치를 끝으로 죽게 되며 이후에 바벨론 제국에 대한 고레스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B.C539년이었고 처음에는 다리오에 의해서 지배되다가 그 후에 고레스에 의해서 직접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고레스는 B.C538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렸고 B.C537년(혹은 536년)에 제 1차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스1:1-2, 2:1-70)

그러므로 다니엘 9장의 계시를 받을 때는 아직 유다 백성이 돌아가기 전 약1-2년 전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바 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렘25:12). 이때부터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3-19절).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다니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메시아왕국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자기 민족과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내용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9장은 다니엘과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예

언만이 아니라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계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B. 계시의 내용

계시의 내용은 24-27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4절은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25절, 26절, 27절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24절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완성되는 기간이 "70이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언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특별히 날짜나 연대에 매이지 말고 사건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날짜는 아버지의 아시는 일이라 하셨으나 그 징조 곧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라 하셨습니다(마24:36, 눅21:31). 그러므로 본 다니엘 9장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70이레라는 기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70이레라는 것은 역사의 진행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5, 26, 27절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총 시간을 합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 25절의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가?

. 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이레가 지났습니다..

나) 이 기간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성벽을 따라 외곽에 파 놓은 도랑 곧 참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났습니다.(예수 그리스도 초림 하심을 의미)

25절의 계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과 성전과 성벽 등이 건축 되어질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하시기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때의 총 기간은 69이레입니다.

나. 26절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26절에서의 특징은 70이레의 기간 중에서 69이레와 마지막 한 이레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중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가)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나)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할 것임(마24:1-2, 눅21:20-24)

이 사건은 로마 제국의 타이투스(Titus, AD79-81년) 장군에 의해서-그는 AD79년 로마의 황제로 즉위함-예루살렘성과 성전의 훼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로마는 AD395년에 동서로 갈라졌다가 AD476년에 서로마 멸망, 1453년에 동로마 멸망)

라) 세상은 끝까지 전쟁으로 황폐케 될 것임.

다니엘에게는 비극적인 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다가 다시 무너진다는 비극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시됨으로써 영구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27절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27절의 사건은 70이레의 기간 중 남은 한 이레 기간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내용정리를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그가 등장함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는 26절의 한 왕의 백성 곧 다시 말해서 로마의 티투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그림자로 하고 27절에서는 새로운 그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26절 이후 그가 등장하기까지는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이레는 그가 등장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합니다..

그런데 이 한 이레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반부에는 제사와 예물이 자유롭게 드러지나 후반부에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운 물건(우상)을 거룩한 곳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진노가 그에게 쏟아지게 됨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등장할 시기에는 유대인들이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반드시 그라는 존재가 등장할 무렵에 다시 세워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 마24:15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참고 성구 행21:28)

. 살후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

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 계11: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다가 다시 무너졌다 해도 적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타날 때에는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오늘의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키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이미 지금은 성전의 모든 설계가 완성되어 있고 제사장들을 위한 학교가 설립되어 교육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 본 바대로 다니엘서9장의 결론은 24절입니다. 25, 26, 27절을 거쳐서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24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a) 허물이 마치며 b) 죄가 끝나며 c) 죄악이 영속되며 d)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e)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참고성구 계 1:7) f)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쁨부음을 받으리라 (참고성구 마19:26, 계11:15)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 초림 때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 본문 내용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이것은 주님 재림하심으로 그야말로 모든 죄악이 끝나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상이 완성되고 주님이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때 나타날 특별한 징조 4가지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감지하여야 합니다. 천국복음이 전세계, 이슬람을 포함, 미종족 지역까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재건, 그리고 적그리스도 출현 등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천국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예언은 하나라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되며 성전은 잠시나마라도 재건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복음이 이슬람을 지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쪽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음을 역사의 벽보를 통해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천국복음을 들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슬람지역과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이 일을 주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쪼록 유니버설케어가 그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깨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합시다. 정신차려 신앙생활하고, 정신차려 전도와 선교에 매진합시다. 주의 강림하심과 하나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

실크로드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

복음의 서진 운동과 선교전략

황필남 목사

몽골인 선교사

Universal Care 상임고문



서론: 백 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
운동이란 1940년대 중국 가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시작되었고, 실크로드를 따라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거부하고 있는 힌두권, 불교권, 모슬람권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파하자는 비전속에서 시작되었다. 실크로드를 통한 복음의 서진 운동이란 과거 비단길을 통해 무역과 문물 교환을 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비단길을 통해 역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운동이다.

그리고 1989년 세계 복음주의 2차 로잔 대회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10/40창에 대한 선교 비전과 중북

되는 점이 있다. 이 대회는 국제기독교 21세기 운동본부 총무인 루이스 부시를 중심으로 위도 10도에서 40도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로 세계선교의 방향성을 전환시켰다.

“이 지역내에는 5,100개의 종족이 있고, 미전도 종족 전체의 90%가 들어 있다. 이들 안에 거주하는 종족 속에는 복음 증거자들이 거의 없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고 있고 그들은 대부분 영적 힘이 없는 상태다.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역도 있다.”

백 투 예루살렘 운동이나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 목표가 비슷하다.

1990년초 기지개를 펴고 선교하던 모퉁이들

선교회나 그 후에 후발주자로 선교도상에 실크로드 선상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인터콥 선교사들, 그리고 청년 선교단체인 YWAM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 토마스 왕 목사나 중국인 형제들의 서쪽 전도와 예루살렘 목표를 주장하는 여행으로 복음의 서진 운동이 선교의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다.

하지만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서진 운동이나 복음의 실크로드 사역은 낯설은 말이 아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사역에 연계해서 당연히 전개되어야 하는 선교 사역이다. 이런 용어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실크로드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 시대 실크로드를 통한 복음의 서진 운동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파도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그리고 성령은 이미 그 사역을 진행하셔서 한 참이나 되었다. 그리고 복음의 서진 운동에 대한 열매들이 여기 저기서 쏟아져 오고 있다. 문제는 그 가속도가 언제 더 붙느냐가 관심사이다. 2-3단의 기어를 놓고 달리던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만나면 기아가 4-5단으로 들어가듯이 복음의 서진 운동에 선교의 가속도가 붙을 날이 언제인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다.

2009년 몽골에서 몽골인들로 구성된 단기 선교팀을 조직하여 선교사가 러시아내 브리아트 공화국 울란우데를 찾아갔다.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시장을 찾아가서 상점과 거리에서 전도를 했다. 한 옷감가게에서 처음 만나 전도했는데, 키르기즈스탄에서 와서 장사한다는 한 옷감장수 여인은 복음 전하는 한국인

선교사와 통역하는 몽골인 여 청년에게 아주 밝은 얼굴로 많은 관심을 두었다. 복음의 문이 날마다 더욱 활짝 열려 가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실크로드 선교의 비전을 보았다.

우리가 복음과 사랑과 기도로 무장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시다는 교훈을 얻고 돌아왔다. 전하는 자가 없어서 문제고, 준비된 자가 적어서 못 듣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태도가 서툴러서 장애가 되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용하실 준비가 끝났고 복음을 받을 자들의 마음이 이미 열려져 있음을 발견하고 놀랐다.

지금은 복음의 서진의 때이다. 그 서진의 때에 호흡하고 있고, 그 서진의 때에 신앙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며, 복음의 서진운동에 기동처럼 쓰임 받는 자들이 되자. 그러기 위해 기초적인 이해를 갖기 위해 **1) 복음 서진 운동을 위한 일반적 이해 2) 성경적인 전략들 3) 주변국들의 임무**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 서진운동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복음의 서진 운동 일반적 이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복음은 두 갈래로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 삼위일체 교리를 잘 정립하지 못했던 동방 기독교가 이단으로 정죄되어 동쪽으로 선교를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분인 네스토리안파의 경교가 7세기경부터 복음을 가지고 동진 운동을 했다. 그 결과 경교는 실크로드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우즈베크와

몽골을 거쳐 중국 당나라로 갔고, 그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까지 왔다. 이런 증거로 몽골에는 바양을기, 바이헝골, 호브드 등지의 여러곳에 암각화속에 정십자가가 그려진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동부 몽골지역에 연결되며 허흐호트 근방에 퍼져있다. 그리고 중국의 당나라에 증거들이 있고, 한국의 불국사안 그리고 일본에서까지 증거들이 나왔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정통 기독교의 전파였고 이것은 분명히 복음의 서진이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사역했으나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는 헛수고를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에 복음을 가지고 유럽에 가서 전파한다. 그 결과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교회를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그 이후에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후에 복음이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참 자유를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복음을 신 대륙인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 등으로 전달한다. 그 복음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얀마와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장된다.

이제 시대가 흘러 21세기가 되었다. 복음은 이제 아시아에서 다시 옛 실크로드를 타고 서진을 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 온 세계 기독교계는 10/40 창안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사를 앞다투어 파송하고 있다. 그래서 1990년 이후에 극동 아시아 연해주와 러시아 구소련 지역들과 몽골과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왔다. 개신교는 지난 구 소련과 공산주의의 붕괴

후 22년 동안 300,000명이 넘는 단기 선교사들과 50,000명이 넘는 장기 선교사들(추산)을 복음의 서진 운동을 위하여 파송해 왔다. 이것은 전 세계 선교사들의 30% 이상을 복음의 서진 운동을 위하여 쏟아 붓고 있다는 증거다. 어떤 선교단체나 그 어느 누구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에 몰 흐르듯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기심이 나던 시기를 지나고 이제는 그들도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롬 9~11장).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도바울의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중동의 예루살렘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길목에 도사리고 있는 모슬람의 강력한 진과 샤머니즘, 불교, 힌두교와 무신론의 잔재들이 있는 장벽을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역에 선교사들과 지역 전도자들을 투입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교회 개척은 전도의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피터와 그너). 특히 15억의 중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으나 아직도 무신론과 소수 민족들의 우상들이 산재해 있다. 북한에는 무신론과 인간 신격화에 따른 또 다른 우상이 있다.

일본은 불교와 샤머니즘이 혼합된 태양신

송배가 아직도 견고한 터를 잡고 그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다. 몽골과 북방 산악지대에는 정령송배와 연결된 샤마니즘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 한국에도 조상신, 자연신, 목조신, 동으로 만든 우상송배, 그리고 무당종교 샤마니즘이 자리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티벳에는 라마불교가 그리고 러시아내의 스탄 국가들 속에는 모슬람이 즐비하다. 인구 13억의 인도는 다신론 형태의 힌두교와 셀 수 없이 수많은 종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동남 아시아에는 소승 불교가 많고, 인도와 스리랑카에는 힌두교도들이 많다. 인구에 있어서 세계 4위인 인도네시아에는 상당수가 모슬람 교도들이다. 말레이시아에도 대다수가 그렇다. 필리핀은 다수가 카톨릭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서진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복음은 서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진도 하고 때로는 동진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한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여 동진했고, 호주에서는 북진하였다. 미국에서는 서진하여 한국까지 선교사를 파송했다. 최근에도 복음은 동서남북으로 가리지 않고 성령과 함께 간다.

중앙 아시아 국가들에서 복음의 서진이 뚜렷이 목격된다. 최근에는 몽골과 내몽골, 그리고 중앙 아시아에 꾸준히 신자들이 늘고 있고, 선교사 시대에서 자국민 토착 교회 지도자들 시대로 이전되고 있다. 그 결과 자국민들에게 의해서 복음이 점차 세를 얻어가고 있으며 중앙 아시아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팀을 만들어 활발하게 장단기 선교에 뛰어들고 있

다. 또한 장기 선교사 파송도 꾸준히 늘고 있고, 복음의 서진운동이 더해 지는 추세다.

2. 복음의 서진 운동을 위한

성경적인 전략들

유럽에 복음의 서진의 주체자는 성경적으로 볼 때 성령님이셨다. 성령의 사역에 쓰임 받았던 선교사 바울의 행적에서 복음이 서진하기 위해서 어떤 이해와 전략을 가져야 할까?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보자.

1) 성령의 반대로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을 중단하라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인간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비록 바울은 부름 받고 선교사로 파송 받았고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현장에 갔으나 그는 성령의 뜻을 몰랐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며 선교의 주체자이다. 비록 금식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수 받고 파송 받았으나 바울은 성령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노력했고 수고하며 선교를 위해 에너지를 소비했다. 하지만 그의 소아시아 선교는 실패하고 있었고, 전진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었다(행 16:6~7).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총회, 선교 단체의 전략과 엄청난 후원은 때때로 바울의 경우처럼 물거품이 되어 메아리로 돌아올 때가 있다. 선교사들의 수많은 사건 사고와 선교사의 아내나 자녀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희생에도 불

구하고 전혀 선교 사역에는 진전이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3대째 선교사였던 맥가브란처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나는 과연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있지는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모든 선교 계획과 자신의 열망을 중단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선교를 잠시 중단시키는 일만이 최고의 방법 중 하나다. 성령을 거스리는 모든 선교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나는 선교의 일을 벌리고 적지로 깊숙이 파고 들어 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2) 성령이 원하는 지역을 찾아내고

그곳에 집중하라.

도널드 맥가브란이 교육, 병원과 구제에 쏟아 부은 미국 선교에 단 1%의 열매도 없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고 지구상에서 선교가 잘 되고 있는 곳들을 방문하며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교의 뜻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세계 여러 대륙에서 펼쳐지는 교회 성장(Church Growth)을 연구하게 만들었다. 선교의 초년생을 막 벗어나 중등생이 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통찰은 내가 간다고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행 16:8~10).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만 선교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일어나

돕고, 선교의 동역자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 바로 그것이다.

중앙 아시아 길목인 몽골에서 선교하다가 어떤 때는 이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스스로 던졌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가 하나님이 보실 때 맞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더욱 깊어져서 나를 세계 선교학 박사 논문의 70%가 쏟아 지고 있는 풀러 신학교까지 입학하게 하고 더 배우며 연구하게 만들었다.

내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산사르에 있는 한 미국 선교단체 사무실에서 성령의 뜻을 발견하고 곧바로 돌아와 기도회를 열어 몽골 현지인들에게 장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신감있게 설명했다. 현지인들이 선교사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뜻을 듣고 깨닫게 되자 곧바로 기도하면서 전도대를 만들어 파송을 시작했다. 그 이후 몽골 수 천킬로미터의 거리를 마다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십 곳에 전도대를 파송했고 교회들을 세워나갔다. 그 수 백년 동안 없던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 이후에 수도 없이 그렇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한 가지 통찰을 얻은 것은 성령이 원하는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뜻을 발견하기까지 3년을 레닌의 무신론이 깔아 놓은 환경, 좁고 척박한 지역에서 기도하며 인내해야 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지만 그 선교를 총 지휘하는 사령관은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일 하신다. 사도행전 8장 28절 이하의 빌립의 경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베

드로의 기도와 고넬로 집으로 인도하던 성령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행 10장). 그러므로 성령님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도하시기 전까지 선교사들은 자신을 절제하며 기다리고 또 인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령이 싸인을 줘야 확실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선교지에서 드러지는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

선교지에서 드러지는 기도와 경건의 시간과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 온다. 예루살렘 사역지를 떠나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가 가죽제품 전문가 시몬의 집에 거주하며 기다리는 베드로를 보라. 그는 식사시간 배가 고픈 시간에도 기도하러 2층엘 올라갔다. 그가 기도를 깊이 있게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북부 가이사랴 군 주력부대가 있는 도시로 올라 갈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성령이 이미 보내온 군인들과 종을 따라가라고 알려 주셨다. 전도하여 영적으로 잡아 먹어야 하는 고기들도 보여 주셨다. 육신의 배가 고프며 한계에 도달할 때, 영적으로 잡아 먹어야 할 것을 보여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행 10:10~19). 선교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현장에서 기도하는 특권을 누린다. 선교 현장에서의 기도는 현장에 이미 찾아오셔서 곁에서 역사하시는 **파라 클레토스(돕는자 성령)**의 인도를 쉽게 받게 한다.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했던 빌립도 이런 경험을 사도행전 8장에서 체험한다. 누가복음 2

장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체험을 높은 시므온과 만나도 하게 하셨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의 선교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시아에서 했고(행 16:9, 10), 유럽에서 했고(행 16:13, 16), 아시아의 최고 상업 도시중 하나였던 고린도에서 경험했고(행 18:9, 10), 로마제국으로 여행하던 배에서도 체험했었다(행 27:23, 24).

그러므로 복음의 서진운동을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기도와 그 지역 전도자들의 기도와 예배와 경건의 시간을 철저히 가질 때 복음의 서진운동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창출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며 전략이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때로는 기도처를 찾고, 감옥에 있을 때는 동역자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어진 상황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선교지의 예배가 처해진 상황가운데 드러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길을 제시하고 방법을 알려주신다.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현지 정권을 제어하고 약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의 현장기도는 그 국가의 정치와 종교와 사회의 정사와 악한 권력을 묶고,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서진 운동을 위해 돕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선교하기 위해 파송을 받고 나선 후에 하나님은 디모데, 루디아, 누가, 나손, 에바브로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을 이미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서진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동역자들을 준비하셨었다. 그분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셨다.

3. 복음의 서진 운동을 위한

주변국들의 역할

축구경기에서도 풀백으로 방어해야 할 사람들과 허리를 지키고 적을 무산시키고 야군을 돕는 패스를 해서 골을 작렬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적진을 파고드는 공격수들이 있듯이 선교도 각자가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실크로드의 복음이 서진을 위해서 세계에 산재해 있는 기독교도들은 각자 무엇을 행해야 할까? 각국이 행해야 할 사역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전략을 세워보았다. 다음은 실크로드 서진 운동을 위한 각국 기독교인들의 사용 가능한 전략들이다.

1) 일본이 실크로드 선상에

담당해야 할 선교 부분

일본 기독교는 첨단 산업과 경제력과 성경번역과 공급 그리고 전도지를 만들어 내는 사역을 행해야 한다. 일본은 전체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1억 2천 7백만명)의 0.7%밖에 안된다. 일본은 기독교 인구로 사역해서는 승산이

없다. 하지만 일본은 정교한 기술과 지구력 그리고 경제력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국민성과 자본력과 첨단 산업과 원색적인 믿음이 있다. 신앙인들이 한국에 비교해 소수이나 한번 믿으면 정확하고 원색적으로 믿는 참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 그것이 일본 신앙인들의 강점이다.

실제로 10년 전에 몽골에 와서 국방부에서 복음을 전했던 야타베 장군(소장)은 그런 일본인들의 기질로 몽골 군부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복음을 전파를 했다. 그리고 일본인 두 선교사(다카시, 키타무라)의 성경번역 사역과 일본에서 들어온 마른모리 선교단체는 전도팀 조직, 전도 열정, 전도지 제작, 단편 예수 영화 보급 사역에 있어서 정교하고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아직은 숫적으로 열세이나 부분적으로 뛰어난 일본인 기독교도들이 복음의 서진 운동에 참가할 부분이 있다. *일본 교회들은 하나님앞에서 복음의 서진 운동에 분명히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것은 일본인에게 주신 부의 축복과 기술력과 첨단 장비들 그리고 정교한 두뇌, 인적 자원등을 복음의 서진 운동에 적극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2) 한국인들이 복음의 서진 운동에 해야 할 역할

한국은 구 백만명의 신앙인(18%)과 6만명의 목사들과 2만 5천명의 장기 선교사 그리고 아시아 석사학위 이상의 신학자 2/3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한국은 복음 전파의 지상군 역할과 실크로드 선상의 신학교 교수 사역을 행해 제

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이미 복음의 서진운동에 활발하게 동참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지난 22년동안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장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선교 기지들(선교단체 지부 혹은 현지인 교단)을 세워 두었다. 또한 22년 동안 씨를 뿌리고 추수해서 양육해 놓은 상당한 양의 제자들이 있다.

한국은 복음의 서진 운동에 주역 혹은 현지인들과 동역자 역할로, 때로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섬기며 필요한 선교 장비를 공급하는 후원 사역으로 동역하며 북한, 중국, 몽골, 구 소련과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들이 실크로드를 선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응원하고 도전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이 이런 찬스를 놓치면 영원토록 후회하고 천국의 땅 바닥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한국 선교의 강점은 든든한 우방 후원교회들과 총회들과 선교단체들이다. 풍부한 120년의 신앙 경험에 있다. 한국 선교는 가난과 전쟁과 식민지 생활로 어려운 국가의 상황 속에 신앙을 접목시켜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997번의 외침과 아픔을 인내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험이 실트로드 지역의 대다수 가난과 무신론과 우상들과 정령숭배와 무식과 경제적 고통 그리고 여성차별과 성문제와 마약에 노출된 국민들을 치유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오일과 지하자본 개발로 부유해진 국가들도 일부 있다. 하지만 잘 살게 된 한국이 경제와 신앙의 힘을 결부시켜 복음을 전한다면

다른 민족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외침을 수없이 당했으나 외국을 침략해본 경험이 없어 한국은 원수가 적은 나라다. 그래서 한국은 선교하거나 국제 정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21년 전 몽골을 갔을 때 몽골의 한 높고 유명한 지식층의 인제는 말하길, “우리는 한국을 여러 번 침략했고 한국은 우리를 침략한 경험이 없어 우리 몽골이 한국에 마음이 활짝 열린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를 두 번 침략했고 우리도 두 번 공격했으므로 비겼다. 그리고 일본인에 대해서는 긴장이 있다”고 했다. 몽골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선상의 많은 국가들이 몽골처럼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다. 이것이 한국인 선교사들의 선교하는데 있어 유럽 선교사들보다 더 좋은 강점이다.

3)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파송해야 함

중국은 인구가 13억 5천만 명으로 세계 1위, 경제 2위 대국이다. 한족을 포함하여 56개의 소수 민족이 있다. 종교는 도교, 기독교(1억), 불교 순이다. 볼루 칼라들의 평균 월급은 매월 48만원이다. 중국은 635년 경교의 동진을 통해 첫 복음을 받았고, 1807년 영국인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Morrison)이 최초 선교사로 활동했다. 그는 7년만에 첫 회심자를 얻었고 이후 150년 동안 유럽 선교는 고진감래 끝에 미래 중국 교회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놓게 되었다. 1920년대에는 중국 선교의 절정의 때를 맞이했고, 10,000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중국의 각처로 복음을 들고 파고 들었다. 어느 정도 복음 전파는 성공했으나 많은 문화적 장벽을

만들어낸 불완전한 선교였다. 1949년 마오쩌둥에 의해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1950년에는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를 받았고 1953년에는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기독교의 거울을 맞이 하였다.

이후 30년간 하나님만이 혼자 중국내에 머물며 선교하셨다. 1970년말 중국을 다시 들어간 유럽 선교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깜짝 놀랐다. 없어진 줄로만 생각했던 중국의 기독교는 오히려 놀랄만한 기적을 간직한 채 더 많은 숫자와 더 놀랄만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서 있었다.

중국을 실크로드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남겨 놓은 교회다. 하나님은 모슬렘 선교와 백투 예루살렘 선교 사역을 위해 특별히 중국을 부르셨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동안 먼저는 공산당으로부터 핍박으로 연단 받게 하시고, 다음에는 세계의 공장과 경제력 축복해 주셨다. 핍박과 체포 연단을 통해서는 인내하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결사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축복을 주셨고, 경제적인 은혜를 통해서 세계에 나가 선교하는 물질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제 중국인 형제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복음의 서진을 위해 헌신할 때다.

중국 상위층은 선교하는데 충분한 양의 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복음적인 신자들이 극소수이므로 이들을 위한 선교와 실크로드 선교의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1억이 넘는 성도들이 선교에 도전되고 불이 붙여져야 한다. 중국인들의 가슴속에 선교의 열망과 비전이 심어지면 세계 최대의 영적 군인이

된다. 그들은 아시아와 유럽에 퍼진 중국인 디아스포라들로 연결되어 수많은 영적 군인들로 형성될 수 있다. 세계 인구 5명당 1명이 중국인 것을 생각하면 실크로드 선교의 핵심은 중국인 선교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본토와 세계에 산재해 있는 화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긴박성도 중요하다. 현재, 경제와 스포츠는 중국판이 되어 버렸다. 중국이 참 복음으로 무장만 되면 세계 선교에 얼마나 지대한 공적을 남길 것인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미국의 여러 도시에 있는 차이나타운,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도 중국인들 상인들이 즐비하다. 호주나 홍콩이나 대만이나 동남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다. 화교들 손에 들려진 자본금을 모두 복음에 투자 한다면 모슬렘의 오일달러는 상대가 안 된다. 1억이나 되는 중국인 성도들이 복음의 바이러스가 되고 복음의 불이 붙여 진다면 세계의 영적 전쟁터에는 성령의 불길로 온통 불타 오를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될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중국어를 공부시키고 중국문화를 배우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 중국인들을 말씀으로 세워야 한다.

중국내에 있는 선교사들은 중국인 형제 자매들이 중국내 소수 민족들로 복음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끝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도록 교육하고 권면해야 한다. 한국 선교사들은 중국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가도록 안내하고 섬기고 도와야 한다. 같은 동족인 홍콩 교회와 싱가포르 교회와 대만 교회가 중앙 아시아 선교에 동참하도록 길을 안내하고 열

어주고 보여 주어야 한다.

중국에는 끝없이 성경을 인쇄할 수 있는 재료와 세계의 공장들이 있다. 중국은 1억이 넘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 나라다. 중국은 핍박을 경험했고, 그 핍박을 상과 면류관으로 위로하시고 영적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복음 서진에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중국은 영적 선교 재원을 생산하는 공장이며, 끝없이 필요한 영적 지상군들이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하는 나라다.

4) 몽골의 선교사들을 실크로드로 전진 배치해야 한다.

몽골족은 유목민들이다. 이스라엘처럼 유목문화를 가지고 있다. 초원을 따라 쉽게 이동하고 추운 곳에서 강인한 정신을 배웠다. 전쟁을 통해 어떤 적진 속에서도 살아남는 기질을 터득했다. 35개의 모음과 자음이 있어 안 나오는 발음이 거의 없는 몽골어를 배운 몽골인들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쉽다. 몽골인들은 한국말도, 독일말도,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심지어 중국어나 배우기 어려운 러시아어까지 쉽게 배운다. 새로운 환경에의 뛰어난 적응력, 놀라운 언어 습득력, 삶의 터전을 쉽게 이동하는 유목민 기질은 선교 사역에 활용한다면 새로운 지역에 쉽게 이동해 가서 살며 복음을 전하기에 유용하다.

복음만 들어가면 지방이고, 외국이고 드나드는 몽골인들을 복음 전파자들로 격려하고 도전한다면 몽골은 소수(외몽골 3백만, 외몽골 6백만)이나 생동감있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무한하다. 특히 최근 몽골에는 세계 4위인 구리 생산과 금광, 탄광에서 광물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만간 엄청난 부를 누릴 몽골이다. 지난 22년 동안 인구 3~4%의 기독교 인구를 확보한 것은 실크로드 선상 복음 전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상이다. 2011년 GNP 3,200\$,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률 1위라 한다. 더 잘 준비된 몽골 선교사들이 징기스칸의 기질을 가지고 유럽까지 순식간에 밀려갈 날도 말지 않았다고 본다. 몽골이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처럼 국민소득 2만\$ 시대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주변국가들로 나가게 된다. 소득 5천불이 되는 2012년에 중국과 러시아내 소수 부족들 속으로 수없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본다.

5) 구 소련 스탄 지역들과 우즈베키스탄이 선교사를 파송해 함

인구 27,600만명, 이슬람 88% 동방 정교회 9%인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크인 80%, 러시아인 6%, 타지키스탄 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변에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등과 붙어 있다. **주변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등이 위치하고 있다. 중국에서 서진하여 이들 나라를 지나면 이스라엘이다.**

이들 스탄이 붙은 나라들은 대부분 모슬렘 국가들이다. 최근에는 러시아 정교회와 모슬렘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추방하는 일을 정부와 합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 양육된 제자들이 주변 국가들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 그들이 자기안에서만 거주하지 않고 타민족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

를 보게 될 것이다. 한국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선교에 도전해야 한다. 개방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고 삶으로 보여 주었다. 이제 그들 제자들이 일어나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할 때가 되었다.

뉴스 미션(New Mission) 의하면 2010년 세계에서 기독교 핍박 1-10위 국가들은 북한, 아프카니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소말리아, 이란, 몰디브, 우즈베키스탄, 예멘, 이라크, 파키스탄 등이다 한다. 이 자료에는 2개의 스탠이 있다. 이들 국가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그만큼 위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지혜롭게 사역해야 함을 볼 수 있다.

오픈도어 선교회 발표로는, 최근 이란과 중동지역의 모슬람국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신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보고 했다. 2012년 4월 12일 모언론에 의하면, 10년째 연속으로 북한이 핍박 1위 국가이며, 현재 20~4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기독교인들 중 수용소에 7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이슬람 국가들이며 전체 50개 국가 중 38개국은 무슬림이 많은 나라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이 중 아프가니스탄(2위), 사우디 아라비아(3위), 소말리아(4위), 이란(5위), 몰디브(6위)는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거의 없다. 우즈베키스탄(7위), 예멘(8위), 이라크(9위), 파키스탄(10위)이 톱10 국가에 들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이슬람 국가들이 복음이 서진에서 가장 큰 장벽들이다.

6) 이스라엘이 담당해야할 역할

이스라엘은 아직 자국의 복음화도 감당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믿는 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 랍비들이 회개하고 개종하고 있고, 러시아 등지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자들이 복음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종교상황은 유대교(80.6%), 이슬람교(14.6%), 기독교(2.2%) 이 중 개신교는 0.09%(2005년 기준)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어느 누가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증거하면 그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추방이며, 아예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는다. 이토록 하나님을 믿는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서의 약속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한다.

영적으로 나약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전도하는 일과 이스라엘 바깥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 그리고 외부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함이 좋은 전략이다. 특히 예수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토양이 안 좋으므로 먼저 믿은 유대인들과 그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간을 두고 관계 전도를 행하면 좋겠다.

7)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담당해야할 역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 보유국인 미국(10만명), 유럽에서 아직도 많은 선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 독일, 노르웨이(1,400개 선교단체)들이 실크로드에 할 수 있는 일은 선

교의 경험을 나누고, 신흥의 아시아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과 실크로드 선상 국가에 들어가서 선교 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현대 유럽 선교는 대부분 조용한 선교, 우회적인 구제, 교육 선교로, 전투적인 선교, 교회 개척 선교를 상당히 지양하는 편이다. 백인들이 아시아에서 눈에 잘 띄며 핍박의 타겟이 되다보니 선교의 저돌성을 상실했다. 하지만 유럽 선교는 가장 오랜 경험을 자랑하며 현실적으로 높은 지위와 경제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

유럽인들은 정치 경제 교육 구제 등 다방면에 정부와 베이스를 구축한 후 다른 민족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밀착 선교를 하여 열매를 맺도록 정부와 사회에 빛을 비추어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을 감당해 주는 일이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실크로드 선교를 위해 필요함을 채워주고 공급하는 선교의 어시스트로 동역할 때 선교를 극대화 할 수 있다.

1990~1995년경 정치적 불안정과 핍박의 우려속에 있던 몽골에서의 유럽 선교사들이 이런 역할을 잘 해 줬다. Interserve를 중심한 선교 전략회의를 적지에서 행하여 자국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역할을 잘했고, 성경 번역과 교회 개척을 해 나갔다. 그리고 유럽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사들과 잘 협력하여 연합 신학교를 설립하고 재정을 끌어오고 자국민들이 복음주의 협회를 만드는데 적극 협력했다. 이처럼 유럽 선교사들은 아시아와 중동에서 아시아인들과 중동인들이 선교 사역을 잘하도록 결에서 돕고 격려하면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다.

결론: 복음의 서진 운동을 요약하며 우리의 역할과 목적

1) 역사적으로 성령의 복음 전파 행진은 서진운동이 주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어둠에 싸인 유럽을 개혁시키고, 신앙의 박해를 받자 성령의 자유의 물결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복음의 안전지대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교육하고 성령의 불길이 치솟던 미국 선교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과 중국을 생명의 역사로 강하게 치고 돌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 히말라야, 동남아를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2) 복음의 서진 운동은 세계 역사(World history) 속에서 복음을 통해 열매를 맺고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음의 서진 운동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진행하시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이며 세계 경영의 원칙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3) Back To Jerusalem 운동과 실크로드 복음 서진 운동은 하나의 비전이며, 고난받고 연단 받은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세계 최대의 영적 난적이 머물고 있는 중국,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힌두교 모슬렘 불교 샤머니즘과의 한판 영적 전쟁이며 핍박과 두려움을 좌시하는 기독교 선교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성경 말씀이 진

검을 가진 자들이 뱀처럼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를 통해 전개 될 것입니다.

4) 이 운동은 중국의 가정교회, 즉 지하교회 성도들의 난관과 순수한 신앙 속에 꽃피게 된 것이 특징이며,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핍박과 고통과 연계된 순수한 신앙과 그 신앙을 축복으로 이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연결되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5) 실크로드 서진 복음 운동은 이제 전 세계의 그리스도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한 우주적인 교회)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축복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동참해서 마지막 어둠에 덮혀 있는 이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으로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사역을 해야 한다.

6) 실크로드 서진운동은 각 지역마다 지역 교회들이 생명을 건 희생과 헌신을 자기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반대 세력들과 영적 전투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간 선교사들은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내부에서 말씀과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간 선교사들에 의해 조언과 비전과 격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7) 한국 선교사들의 역할은 첫째 복음의 지상군의 역할이다. 둘째는 자신이 사역했던 현지의 전도자들을 잘 격려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조교 역할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현지의 사역자들의 심장에 복음의 불을 붙여 그들 스스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변의 국가속으로 선교사로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선교사들을 주변 국가로 파송하도록 인사이트(통찰력)를 주고 촉매 역할을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5,100의 미전도 종족을 구원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도록 섬기는 사역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분의 길을 따는 공병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님! 주님이 오시는 길을 가장 받아들이지 않으며 거절했던 세력이 제거되었으니 마라나타!

**실크로드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

복음의 서진인가? 확장인가?

김영제 목사

선교 중앙교회

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현 디아스포라 신학교 교장



근래에 와서 어떤 선교단체나 선교 동원가들 중에 '백 투 예루살렘'(복음의 서진)을 외치며 이스라엘 선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강조하는 이들이 있다. 과거에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가던 실크로드(비단길)를 이제 복음 로드로 만들어야 된다고 외치며 전략회의를 하는 선교사들이나 단체들도 많아졌다.

필자는 선교학자들이나 선교동원가들이 시류를 따라 이슈를 걸고 운동을 일으키는 일들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부분과 비성경적인 면도 많다고 보는 사람이다. 선교에 어떤 바람도 필요하겠지만, 성경적인 바른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실크로드와 선교

실크로드는 비단길(Silk Route)이라고도 하는데 실크로드란 이름의 어원은 1877년 독일의 지리학자인 리히트호펜(F. Richthofen)이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인도로 이어지는 교역로를 그 주요 교역품이 비단인 것에 착안, 그의 저서 'China' 라는 책에서 '자이덴 슈트라쎄(Seidenstrasse)' 라고 명명한 것에서 나왔다. 실크로드란 글자 그대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비단길로, 예부터 중국의 주요 교역품이었던 비단에서 유래된 동서교통로의 총칭이다.

실크로드(비단길)는 넓게는 초원길, 바닷길, 사막길 모두를 이야기하지만, 좁게는 사막길

만을 이야기한다.

실크로드가 처음 열린 것은전한(前漢 : BC 206~AD 25) 때이다. 한 무제(武帝)는 대월지(大月氏,현 우즈베키스탄)·오손(鳥孫)과 같은 나라와 연합하여 중국 북방 변경지대를 위협하고 있던 흉노를 제압하고 서아시아로 통하는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장건(張騫)을 중앙아시아로 파견했다. 장건이 서역을 처음 개척한 이래 중국의 역대 왕조는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여러 나라와 끊임없이 사절을 교환했고, 민간인들의 왕래도 빈번하게 되었다. 또한 사신과 민간인의 잦은 왕래는 문물과 문화의 교류를 촉진시켰다. 중국 불교가 발전하게 된 데에는 인도와 중국을 연결시켜준 실크로드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불교 이외에도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 로마에서 이단시되었던 네스토리우스교(景敎), 이슬람교 등도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 전해졌다. 네스토리우스교는 '경교'라고도 하는데 이는 삼위일체 논쟁에서 밀려난 아리우스의 후예들이다. 경교는 중국에서 상당히 널리 퍼졌고 당나라 때에 우리나라 신라에까지 들어왔다. 이 7,000킬로에 이르는 긴 도로를 통해 고대의 희랍과 로마의 문화, 아라비아문화, 인도의 문화가 중국으로 들어 올 수 있었고, 중국의 오대 발명품인 자침, 제지술, 인쇄술, 화약, 연금술, 그리고 양잠, 직조, 의약, 농업 등 주요 기술들이 서역으로 전래되었으며, 서역의 고대 문명, 과학기술, 종교와 그 예술 그리고 특이한 농작물 등이 이 길을 따라 중국으로 전래될 수 있었다. 실크로드는 이같이 상업 면에서 뿐만 아니라 동서 문화의 교류라는 면에서 역사

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살펴 본 바처럼 과거에 이 실크로드는 동서양의 문물만 아니라 종교가 전파된 통로이기도 하다. 요즘에는 네스토리우스교(경교)의 아시아 선교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오늘 공중항로와 해로가 발달한 우리 시대에는 이 실크로드가 꼭 실제적인 통상로보다 상징적인 의미로 동서 문화의 교류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선교학적으로는 이제 이 길을 따라 복음이 동에서 서로 진행되어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이들도 많다.

2. 선교와 예수님의 재림

선교는 주의 재림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선교, 즉 복음전파와 택자 구원 운동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선교가 끝나는 때, 더 이상 선교가 필요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다. 정확한 재림의 날은 비밀로 하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막13:32;행1:7). 그러나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는 복음서나 서신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마24장~25장;딤후 3장 등). 그 중 선교적인 측면만 보자면 크게 두 가지 징조를 들 수 있다.

1)이스라엘의 회복은 종말의 징조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였다(행9:15;26:17). 자타가 공인하는 이방인 선교사다(롬11:13). 그러나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 동족 유대인 구원에 대한

애타는 가슴이 있었다. 그는 자나 깨나 민족 구원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했다.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구원이 자신의 구원과 바꾸고 싶을 만큼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이방인 선교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그는 민족구원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 민족이 구름 떼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한 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배척하는 동족들 때문에 울고 있었다. 필자도 중국 선교를 가면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는 중국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힘을 얻고 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리 없이 운다. 우리 민족도 예전에는 이렇게 간절하고 뜨거웠는데 우리는 왜 첫 사랑의 열심과 겸손함을 잊어 버렸을까... 탄식하며 눈물 흘릴 때가 많다. 다른 사람, 다른 민족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와도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족들이 멸망 길로 가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통이요 눈물이 된다. 민족 복음화를 위한 애타는 바울의 심령,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요, 한민족으로서의 양심일 것이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 9장~11장, 무려 세장에 걸쳐 유대인 구원에 대해 논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돌아오기를 원했다(롬11:11). 또 이방인의 총명한 수가 찬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롬11:25,26). 그래서

선교학자들 중에는 '백 투 예루살렘'을 외치며 예수님 재림 전에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을 것이니 이스라엘 복음화에 힘써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는 자가 매우 적지만 점차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 중 절반 정도가 구 소련권에서 들어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그들 중에는 이미 복음을 받고 들어간 사람도 많아 이스라엘 선교의 귀한 통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아무튼 이스라엘 복음화는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선교 이슈인 것은 분명하다.

2) 모든 민족(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다(행1:8). 예루살렘선교는 지역복음화다. 유대선교는 동일문화권 복음화이다. 사마리아선교는 유사문화권 복음화이다. 그럼 땅 끝은 어디인가? 타문화권, 이방인 복음화를 의미한다. 또 땅 끝은 가장 먼 곳을 의미하지만 가장 어려운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북한이나 이슬람권 등이 땅 끝이다. 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 이 땅 끝이다. 성경의 선교 단위는 국가보다는 민족이다. 예수님은 지상명령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다(마 28:19).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

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했다(마24:14). 세상 모든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다. 따라서 어떤 선교학자들은 재림 전에 미전도 종족 선교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실제로 어떤 나라에는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나라 안에 사는 민족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믿는 이들이 1%도 안되는 종족을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미전도 종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더욱 힘써야한다. 현대 선교의 개척자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 1761-1834) 선교사가 들어갔던 선교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인도에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아직도 지상에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매우 많다. 반면 어떤 지역에는 선교사가 너무 몰려있다. 미전도 종족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젊은 선교사들이 많아져야 한다. 부족하지만 필자의 교회도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크림 타타르족과, 몽골 북쪽 러시아 남부지역에 살고 있는 부랴트족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

3. 복음의 서진, 성경적인가?

(왜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자기 민족은 망하는가?)

소위 ‘백 투 예루살렘’으로 일컬어지는 복음의 서진(실크로드를 지나 예루살렘으로)은 성

경적인가? ‘백 투 예루살렘’운동은 이스라엘 복음화를 통하여 주의 재림을 앞당긴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아직 불교권과 힌두권, 이슬람권 등에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들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복음화,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행여 이런 미전도 지역의 복음화가 소홀히 취급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시작점이며 땅 끝이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시작점이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마지막 종착지인 땅 끝이 되었다. 사도 행전 1:8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다. 실제로 복음의 시작점인 예루살렘에서 지구 한쪽 방향으로 빙 돌기 시작하면 마지막 끝도 예루살렘이 된다. 공교롭게도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과해 소아시아(터키)지역을 지나 남 유럽, 중부유럽, 북유럽, 영국, 미국, 한국,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빙 돌아 예루살렘을 향해 서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흐름인가?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운동인가?

며칠 전 기독교 TV방송에서 유럽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았다. 1,2세기 전 영국은 기독교적인 국가였다. 세계 기독교의 부흥을 주도하던 나라요, 세계 선교의 센터였다. 1904년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미국 아주사 부흥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영국은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첫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와 그 외 많은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송했던 나라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 인구 중 400~500만 명, 전체 인구의 7% 정도, 런던 인구 중 100만 명 이상이 무슬림이라고 한다. 교회당이 술집과 이슬람 사원 등으로 팔려나가고 그중 700곳 이상이 이슬람성전이 되었다고 한다. 선교국가가 이제는 선교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필자가 중동과 유럽지역 성지 순례를 다녀온 후 충격에 빠진 적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어 하던 초대교회... 베드로가 목회하던 예루살렘교회, 요한이 목회하던 에베소교회,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 2000년이 지났으면 더 크고 건강하게 성장해 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거나 옛터에 기둥 몇 개만 남아있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영국처럼 기독교 국가들은 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들은 망하는가? 복음은 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이제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이렇게 빙빙 돌며 옮겨가야 하는가?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8절의 의미인가? 결코 아니다. 주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길 원하신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온 세계 땅 끝까지 퍼져 나가고 확장되길 원하셨다. 다시 말하면 한 가정, 한 지역, 한 나라에 들어온 복음은 계속하여 대를 이어 지키고 전수해가야 한다. 그 기본을 지키면서 그 위에 복음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로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신 것

이다. 사도행전 1:8의 의미는 복음의 이동이 아니라 확장이다. 그런데 그동안 기독교 선교는 복음을 계속 다른 지역으로 옮겨 버렸다. 다른 가정은 구원하면서 자기 가정은 망하고, 다른 나라는 구원하면서 자기 나라는 망하는 해괴망측한 짓을 2000년 동안 계속 반복해 오고 있다. 분명히 이것은 비성경적이지요, 잘못된 선교 패턴이다.

4. 성경적 선교 운동 어떻게 해야 하나?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비결)

그렇다면 성경적 선교 운동은 무엇이며, 바른 선교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한국교회는 유럽교회나 미국교회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선교대국이라고 자랑하며 떠드는 동안 한국교회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특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없다.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영국의 무슬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래 전 영국에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에서 들어오는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들었다. 영국이 방심하고 그들을 지나치게 포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슬람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슬람은 전략적으로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이슬람 선교기지로 삼고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귀화하는 사람도 많아 졌다. 무슬림과 결혼하여 무슬림

이 되기도 한다.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적게 낳는데 비하여 무슬림은 평균 6명 이상을 낳는다. 그러니 한 세대만 지나면 세배 이상씩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왜 기독교는 열심히 선교해도 이슬람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가? 구약성경의 선교 명령은 다산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다(창1:28). 일차적으로 많이 낳는 것이다. 그리고 낳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다(신6:4~9; 창18:19). 이것이 구약적 하나님 나라 운동 방법이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구약성경을 신봉하는 종교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이 구약적 선교방법으로 숫자를 불려가고 있다.

필자는 이슬람권 선교사로 있을 때에 무슬림 동네에서 살았다. 그들은 최소 다섯 명 이상의 자녀들을 기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슬람 가정은 식사 예법과 절기와 모든 문화가 종교적이었다. 그 문화에서 자라면 저절로 무슬림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게 낳을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도 철저히 시키지 않고 있다.

기독교도 많이 낳으면서 선교하던 시대에는 부흥의 속도가 빨랐다. 그러나 낳지 않으며 선교하는 근대에 와서는 그 어느 시대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그 효과가 미비하다.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많아졌다. 기독교인들의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리고 갈수록 세속화되어가는 타락한 세상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방심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문제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지금처럼 한두 명의 자녀를 낳아서도 아무리 열심히 선교해도 이슬람의 부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신약의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이웃)을 제자삼는 것이다(마28:19~20).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를 많이 낳고, 낳은 자녀를 제자 삼는 구약의 지상명령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은 멸망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자기 가정과 나라에 들어 온 복음을 지키고 전수하면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나라 운동이다.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하지 않는 선교는 비성경적 선교요, 절음발이 선교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 부흥도 기대할 수 없다. 무엇이든지 과욕을 부리거나 편법을 쓰면 안된다. 기독교 선교가 너무 서두르면서 편법을 쓸 때가 많다. 다시 말씀 붙들고 구약과 신약의 선교원리를 다시 정립하고 멀리보고 우직하게 달려가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의식있는 크리스천들이 일찍 결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낳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한다. 적어도 크리스천 부부 두 사람이 4자녀 이상을 낳고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운동을 하자. 그러면 한 세대(30년)가 지나면 한국교회는 갑절로 부흥한다. 또 거기에 신약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한 사람이 최소 두 사람 이상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해보자. 그러면 한국교회는 몇 배나 부흥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부흥운동이다.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면서 선교해야

그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선교가 된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선교할 수 있다. 결코 영국처럼 선교하던 국가가 선교 대상국으로 전락하는 불행은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부흥의 원리와 세계 선교의 원리를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망

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신구약성경에 있는 교회 부흥과 선교의 원리를 붙들고 순종하자.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나자! 주님 오실 때 까지 민족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사명에 충실하자.

**실크로드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

실크로드 복음화와 우즈베크의 영적의미

김아굴라선교사/A국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
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24:47~48)**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
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19~2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1:8)**

위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
하신 절대선교명령이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하
나님의 복음을 예수님 자신이 전파하셨다. 즉,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찰
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을 믿으라 하시지라”(막1:14~15) 이 복음이 예
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12사도와 당시의 초
대교인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전파되었고, 특히
복음의 동진과 서진을 통해서 그 복음이 한국
에 까지 전파되게 되었다. 이제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국 2위국으로 우뚝 서면서 120
여 년 전에 복음의 빛진 것을 갓고 있으며 앞
으로 더욱더 해외선교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
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현재의 북음전파경로를 단순히 “북음의 서진”이라고만 단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북음이 흘러가야 하겠기에 북음은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하든 간에 동서남북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그 중에 하나인 북음의 서진에 대한 관점에서 그리고 그것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크이 북음의 서진관점에서 어떠한 영적의미가 있는 가에 대해서 몇자 적어보고자 한다.

넓은 의미의 중앙아시아는 카작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7개국을 의미한다. 모두 ‘탄(tan)’자가 붙은 나라인데 정말이

지 북음에 대한 문이 ‘탄탄한’ 나라들이다. **협의의 중앙아시아**(이하 중앙아시아)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5개국**을 의미하는데, 중앙아시아는 BC 6세기에 페르시아, BC 4세기엔 헬라, 13세기에는 몽고, 19세기에는 소련의 지배를 받았고 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보수적이며 가장 자존심이 센 나라가 우즈베크이다. 그래서 우즈베크은 친미도 친러도 아닌 그들만의 색깔과 자존심으로 정권을 유지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독특한 국가이다. 2012년 현재 기독교 핍박지수 세계7위를 랭킹하는데



2005년 안디잔사태를 기점으로 하여 매년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으며 우즈벡 현지인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탄압이라기보다는 현정권 유지에 따른 정치적인 이유에서이다.** 심지어는 터키나 중동에서 온 이슬람선교사들도 대량으로 추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의 서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우즈벡은 중앙아시아의 관문이고 실크로드의 중심지**에 서있다. 실크로드의 주요도시로는 우리나라 경주, 포항, 중국의 장안,서안, 소주, 둔황, 우루무치, 호탄 중앙아시아의 카불과 우즈벡의 코칸, 타쉬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그리고 아프칸의 박트라 이란의 테헤란, 마슈하드 이라크의 바그다드 등 아래의 지도와 같다.

그 중에서도 우즈벡의 사마르칸트, 타쉬켄트가 실크로드의 중심지이다. 특히 사마르칸트는 현재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지정이 된 3000년 고도로서 지금도 전세계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실제적으로 얼마전까지만해도 중앙아시아에 직항들이 생겨

나기 전에는 우즈벡을 거쳐서 다른 중앙아시아 나라에 입국이 가능했다. 지금도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직항이 없어서 우즈벡을 거쳐야 된다. 우즈벡의 뜻은 “자신이 백부장”이라는 뜻으로 지리적으로 실크로드의 심장부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중앙아시아의 백부장,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실상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경로중에 예전의 비단길(Silk Road), 초원길,바닷길,기타경로들 중에 미전도종족의 90%가 존재하고 있다.

3-2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실크로드의 복음서진 경로가 가장 강력한 이슬람권인 중앙아시아,페르시아,아랍 지역을 구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우즈벡이 가장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언어적으로도 몽골어,투르크어,페르시아어,아랍어의 복합체로 이루어진 우즈벡의 언어가 가장 많은 지역의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어서 그 가능성과 잠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즈벡은 영적 대추수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지역이면서도 내적으로는 가장 견고하게 내실있는



그리스도인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강력한 우즈베크교회가 개척되고 있으며 영적 수확기를 맞이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추방된 선교사들의 피땀이 서려있고, 그간 목숨을 걸고 씨를 뿌려놓은 장,단기 사역자들의 수고덕분에 남아있는 사역자들은 그 반사적인 영적 이익의 열매를 따먹고 있다. 특히 비거주 단교선교의 대량활동으로 인하여 각 지방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며 더 많은 단기 선교팀의 가동이 필요한 곳이 우즈베크이다. 추방의 위험과 지속적인 사역의 연속성이 침해받고 있는 장기사역자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단기 선교팀들은 단타적이지만 강력한 복음의 파종이 될 것이며 작고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되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에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힘이 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각자 선 자리에서 적극적인 선교활동에 동참할 뿐더러 개교회의 건전한 안정과 성장이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후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중국교회, 중앙아시아교회, 페르시아창 교회, 아랍교회,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에게 지상명령을 이루는데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심의 심장부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크 민족이 있음을 이 지면을 통해서 알리고 많은 기도부탁을 드립니다.

실크로드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

U 국 이야기

김예비

전 U국 선교사(2002~8)

강남세브란스근무(1991~2002)

부천소망교회

“천연자원의 보고 U... 상점에 ‘메이드 인 코리아 물결’” 기사의 제목이 매우 흥미롭다. 이 글을 쓰기 위해 고심하던 중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다. 현재 웹 상에서 U국에 관한 기사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 내심 궁금하던 차에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며 검색하던 중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1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3288 달러. U국에 있을 당시 2008년 GDP는 1000달러를 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게 사실인 듯 하다. 여러 선교사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상점마다 상품이 넘쳐나고 있다는 소식은 듣고 있었지만, GDP가 3 천달러를 넘었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 가정이 자동차, 가전 제품 중 텔레비전, 세탁기를 소유하고 있을 때 GDP가 3 천달러 라고 하는데...,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한국을 6차례 방문했다는 U국 대통령의 한국 사랑은 남다르게 여겨진다.

한국과의 긴밀한 외교 관계는 계속되고 있고,

한국의 여러 개발 업체들이 U국에 들어가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 U국은 지정학적 중요성 뿐 아니라 천연자원이 많은 땅이다. 천연가스, 원유, 금 매장량이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순위를 차지하기에 U국의 개발의지에 따라 U국을 둘러싼 중앙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U국은 미래가 밝은 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



세계 면화 생산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U국의 시골길은 목화밭으로 유명하기에 해마다 가을이 되면 목화를 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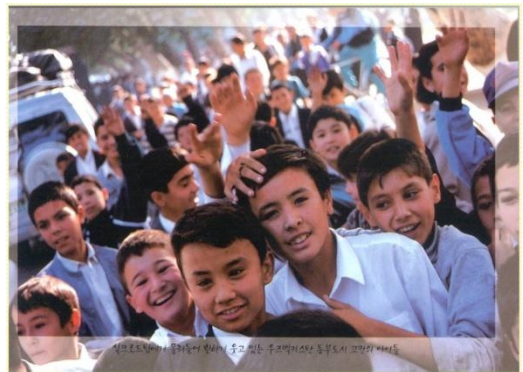
한류의 영향은 U국에도 여김없이 불고 있어 한국인에 대한 호감은 친근하다. 또한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연해주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이 중앙아시아에 정착하여 고려인으로 살고 있기에 시장에서 마주치는 고려인들은 반갑기 그지 없다. 최근에는 근로자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이들도 많아 U국에서 이들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국 국가를 이루고 있는 U국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였다. 타직, 카작, 타타르, 등 130여개 종족으로 구성되었으나 우즈벡 종족이 70%를 차지하

고 있어 1991년 이후 러시아 언어가 아닌 자국 언어를 공식언어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는 공산주의의 붕괴뿐 아니라 영적 상황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공산국가에 들어갈 수 없던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들이 U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여 단단한 껍질처럼 깨지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에 반응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2005년 불기 시작한 공개적인 핍박이전까지 무슬림을 표방하면서도 세속적이며 수피즘 성향이 강한 이슬람 종교를 믿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고 회심하기에 이르렀고 U족 공동체의 교회가 형성되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핍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우즈벡 공동체의 모임들이 감시를 당하고 있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워 지하 가정 교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감시와 고발로 인해 그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풍토가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영적인 상황의 심각성은 매년 오픈 도어 선교회에서 보고하는 세계10대 기독교 핍박 국가에 지난 2009년부터 매년 U국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아직 1% 복음화율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오픈 도어 선교회의 발표는 안타깝다.



핍박, 감시, 고난의 단어를 U국의 교회를 통해 확인하며 복음이 역사하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진동과 흔들림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투옥, 감옥, 환난 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신앙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행14:22)”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막 5:30-32)”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U국 땅에 자라서 커져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가지를 내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U국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부으시도록 기도해야 할 때이다.

한국과의 외교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지만, 한국인 사역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핍박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비자 거부, 추방, 입국 거부 등 U국 사역자들이 만나는 현실은 냉혹하다. 사역자들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23:34”)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U국에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70년 전 불모지 중앙아시아의 땅에 디아스포라 한인을 통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달여가는 땅으로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보고 붙잡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 십자가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다.

**실크로드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

중국 실크로드 - 백 투 예루살렘

강다니엘선교사
갈보리선교회담당임
HIS선교회
전 C국 선교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백 투 예루살렘 운동은 10-40 Window에 있는 국가 중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 운동은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그들은 불교, 힌두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이징에서 실크로드를 통하여 소아시아 지역의 이스탄불까지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온 나라와 도시 마을에 선교사를 보내어 그들을 복음화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0-40 Window는 특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

주하는 지역이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 입니다. 이 운동은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중국 정부의 박해로 수 십 년간 지하에 머물다가 중국의 문화혁명과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면서 중국이 서서히 개방을 할 때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2003년에 백투 예루살렘운동에 대하여 많은 국제 지지자들이 생겨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인 원형제와 수형제가 이 운동에 많은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개신교 지도자들에게나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특정 선교단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여러 논란의 대상이 되어 이 운동은 교회전체로 확산이 되지 않고는 있으나 이 운동으로 인하여 몇몇 단체들과 복음의 서진 운동가들은 선교사를 선교의 최전

방으로 파송하고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몽골, 중국의 서쪽지역에 많은 선교사가 사역을 현재 하고 있는 이유도 이 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 복음의 서진운동은 바울의 마게도냐 환상과 많은 연관을 가집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지라”(행16:7). 바울 일행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빌립보라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 인도 하십니다. 백투 예루살렘운동의 주장은 성령께서 서쪽으로 복음을 펼치신 것처럼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서쪽 유럽으로 그리고 다시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 아시아로 그리고 아시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달되어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중화복음단체에서도 100만명의 선교사를 중국 교회 내에서 파송하기를 서원 하고 선교에 동참 하였을 때 이들 중 많은 선교사가 이슬람 지역으로 파송 되어져 복음의 서진 운동을 함께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선교의 역사는 서진 운동과 다르게 동쪽으로의 복음운동도 역사적인 기록에 있습니다. 이는 동교회(The Church of the East)의 2세기부터 14세기 말까지 선교사역의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는 안디옥에서 북경까지 6,0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주 후 635년에 먼 서방에서 낯선 사람들의 한 무리가 오랫동안 막연

하게 대진으로 알려진 곳 중국을 향하여 이르게 됩니다. “이 선교사들은 발에는 샌달을 신었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었고, 등에는 주머니를 메었는데 그 주머니 속에는 성경과 십자가를 넣고, 걸어서 여행하였다. 그들은 깊은 강을 건너고 높은 산을 넘어서 수 만리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다.”(By Foot to China; John M.L. Young, 걸어서 중국으로;정학봉역). 당시 이들은 장안(후에 서안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방교회로서의 로마교회는 이들을 “네스토리안(Nestorian)”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의 중국의 초기 기독교 선교 역사입니다. 이들의 선교 사역이 사라지고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 중국에는 조직된 형태의 기독교가 예수회를 통하여 다시 들어옵니다. 당시1582년 서른 살의 나이로 들어온 이탈리아인 마테오 릿치(Matteo Ricci)는 마카오로 상륙을 하여 광둥성에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1807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되고 허드슨 테일러(태평천국의 난 초기 입국)의 중국 도착 그리고 1900년 의화단사건 (중국 청대 말기에 일어난 대외적 민중봉기)이 개신교 선교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소멸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49년 중국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들이 추방될 당시 중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카톨릭 약300만명, 개신교 75만명정도가 있었을 만큼 나름대로 복음의 명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지금의 중국 현지교회로 말하는 지교회나 가정교회로 정통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왕밍 따오나

워치만니 같은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압박해도 중국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목숨을 걸고 중국 교회를 지키며 그 안에서 전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이 개방이 되기 전까지 중국 안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 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왕상 19:18).

중국 안에 있는 가정교회와 지하교회 교인들은 바알을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칠 천명처럼 땅끝까지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큰 군사들입니다. 그들은 한국교회와 서방 교회들에게 함께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자고 외치며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단을 가지고 서방에 중국의 상품을 팔았던 그 길을 통하여 이들은 성경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이슬람지역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라마교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도 중국인들에게는 호의적입니다. **백투 예루살렘운동과 복음의 서진 운동은 땅끝 복음운동이 꼭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신학적 충고로 인해 2011년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들의 서진운동과 “백투 예루살렘” 운

동을 지지했던 한 단체는 “백투 예수”라는 슬로건으로 바꾸는 입장 발표를 하며 심지어 “땅 밟기 기도”역시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국 교회에 한 바 있습니다. 중국 교회도 이제는 전세계에 차이나타운을 형성시킨 그 힘으로 세계선교에 앞장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곳이든 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모든 곳이 그들의 사역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선교의 새로운 흐름은 10-40Window에 복음을 전하자는 운동과 더불어 4-14 Window (4살부터 14살까지)로 확장되어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다음세대 복음을 준비해 나가자는 운동으로 폭넓게 가고 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의 복음의 서진 운동이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지역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까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을 선교의 대상지로 보며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운동의 물결은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고 계십니다. 선교사 파송 순위 2위였던 한국이 브라질과 인도교회에 밀려 3위, 4위로 내려가 개인적인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중국이 새로운 선교 역사를 펼치기 위해 100만 선교사 파송을 선포하고 그들의 사역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여러 선교적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사역을 감당해 낼 때 중국은 또 다른 선교의 최대 강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경제도 세계 최대 강국의 반열에 들어 섰습니다. 중국의 위안이 달러를 대체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은 주도적인 자리로 이미 도약 하였습니다. 계속되

는 국제 공항 속에서 중국의 기업들은 아직도 성장하며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은 결국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선교사역은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해서 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첫 번째 부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부름은 어디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자로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히12:1).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4:7).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힘든 어려운 일이지만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라고 말하며 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 해야 할 일을 곳곳하게 감당하라고 전합니다(딤후4:5).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달리기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 우리가 달리는 모습을 응원하기 위해 구름같이 모여 우리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곳. 그곳에는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는 확신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Universal Care 후원 선교사 소개

김아굴라, 최브리스가 선교사



한국에서 직장생활 19년을 마감하고 Interccp 선교단체를 만나서 선교훈련을 받고, 중앙아시아 A국을 단기선교 다녀와서 그곳을 품고 헌신하여 2006년 중반부터 중앙아시아 A국에서 전문인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년간의 1기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위해서 잠시 한국에서 재충전하고 있으며, 2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딸넷을 두고 있으며 첫째와 둘째는 중앙아시아 B국에서 자취를 하면서 대학4, 고3을, 셋째와 막내는 A국에서 9학년,6학년으로 현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A국에서 현지 영혼들을 섬기고 있으며 교회개척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교논단 I

몽골이 깨어나고 있다!

(부제: 기적의 시대를 보여주는 몽골과 몽골 선교!)

항필남 목사

몽골인 선교사

Universal Care 상임고문



서론: 나는 어제 몽골의 온 민족 추수교회의 주일 예배를 보면서, 그리고 지난 여름 내내 몽골의 3 개월을 보면서 **몽골이 깊은 겨울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실제적이고도 영적인 몽골의 기지개를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몽골이 수 백 명의 선교사들과 그들 가족을 자국의 힘으로 밀어내고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몽골 정치의 기지개를 보았다.** 1990 년 개방 이후에 몽골은 외국인들을 일부 경찰서 보호소나 감옥에 넣기도 했지만 이렇게 외국인들을 추방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경제와 정치에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불었다. 매년 수천만

달러는 쏟아놓는 부자 기독교 단체인 월드비전에 대해서도 엄포를 놓고, 경제 재국인 미국인 물론 선교사들 130 명을 한꺼번에 비자를 거절해 버리는 외무부를 보면서 몽골 정부가 많이 바뀌고 있음을 보았다.

두 번째는 **몽골의 경제가 크게 기지개를 켜고 있다.** 불과 5 년 전만 해도 1 년에 국민 소득(GNP)이 1,000 불을 조금 넘었는데 금년에는 5,000 불이 될 예정이다. 경제의 이런 성장은 울란바토르와 전국의 도청소재지를 갔을 때 울긋 불긋 바뀌어 가는 지붕색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었다. 녹색, 빨간색, 주황색등 형형색색의 중국제 철제 지붕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새 아파트들과 고층 건물들이 날마다 올라가고 있다. 여기 저기에서 다리공사, 도로공사, 고속도로 공사가 새롭게 설계되고 진행되고 있다. 돈드고비와 으른고비 600Km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동서를 가로지르는 미앙가팅 잠(2,000Km 가 훨씬 더 되는 도로)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도와달라고 자존심을 버리고 요청하고 달려들던 몽골 대사들과 정부와 중요인사들이 요즘에는 비싼 외국제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값 비싼 의자에 앉아 행세를 하고, 부인들은 외제 명품을 골라 외국에까지 나가 쇼핑을 하고 있다. 아침에 한국에 가서 몸에 좋다는 음식물과 값비싼 물품을 사서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상에 올려진다. 겨울에는 몽골이 공기 안 좋다고 독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아프리카까지 좋은 곳을 찾아 다닌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울란바토르의 근교에 있는 한드가이, 가초르트, 테렐지, 자이승에 값비싼 별장들을 준비하게 짓고 산다. 그 중에는 40 억에서 70 억짜리 수영장을 갖춘 초호화 별장들도 지어 놓았다.

세 번째는 몽골의 종교가 일어나고 있다. 4,500 여년의 몽골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몽골을 사로잡아 온 종교가 바로 샤머니즘이고 그 다음이 라마불교였다. 기독교가 한 때 그 역사의 중심과 변두리에 있었고 무신론 공산주의가 70 년을 차지했었다. 최근 들어 샤머니즘과 무당종교가 다시 일어나며 기승을 부리고 있고, 라마

불교도 다시 커져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슬렘과 이단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부활과 천국의 진리를 전하는 기독교가 정부에 등록해 가며 사회인들의 인식에 공감을 얻어가며 가장 공식적인 종교로 질서 있게 자라고 있다.

네 번째는 몽골 기독교의 복음 전파 속에서 소망을 본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소망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편에서 보면 어제 주일에 드러진 예배와 그 내용물속에서 큰 소망을 보았다. 온 민족 추수교회는 지금 중국내 이벵케족과 다른 종족들을 위하여 3 개의 순수 몽골인들로 구성된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다. 그들은 중국의 칭두우 지역과 이벵케족으로 갔다. 그리고 한 부부는 북한을 갔고, 다른 한 몽골인 제자는 북한을 다녀왔다. 암으로 죽다가 살아난 다와 자매(와싱톤과 시카고 몽골 교회 출신)는 구역장으로 구역원 6 명을 이끌고 머나먼 으른고비 바양 달라이 군으로 단기 전도를 다녀왔다. 먼저 천국에 간 나착아 목사님 사모님과 아들 푸르베 목사는 제자들을 봉고차에 태우고 동부 고비 초이르와 이헤드 군과 몽골의 동부심장인 수흐바타르도 바론오르트 도시로 왕복 1,500Km 가까이 달려가 전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티벳을 위해 이뜨르 토야양이 선교사로 재 파송되었다. 그리고 온 민족 추수교회의 에르덴 호익 전도사와 알탕 수흐사장이 이끌고 단 전도팀이 각각 560Km 떨어진 으브르항가이도로, 그리고 수흐바타르도 등 여러지역에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다. 하나님 날개교회(트므로 전도사)는

으브르항가이에, 몽골 교회들은 현재 보내는 교회의 복을 받고 있고 전도와 선교사역을 즐기고 누리고 있다. 활발한 복음 전도가 몽골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 선교가 활발하게 계속 진행 중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 7 개 팀(140 명)이 황 선교사와 함께 14 개 교회 돌며 4,560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결과 세상 속에 살던 약 400 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넘어 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어린 아이들이다. 2 개의 의료 선교 팀으로 말미암아 약 2,500 명이 무료 진료를 받는 의료 혜택을 누렸다. 단기 선교팀 덕분에 황 선교사는 48 개의 교회 가운데 14 개 교회를 방문하고, 동역하며 돕고, 필요를 채워주게 되었다. 그들은 샌디에고 한빛교회, 청량리 성결교회, 성문교회 중고등부, 충남 서천의 광야교회, 파주 선유 중앙교회, 월드와이드교회와 유니버설케어 선교회, 성락 성결교회 의료팀 등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과 연관된 수 백 개의 교회와 단체들이 선교를 위해 한 여름에 시원한 몽골을 찾아왔다.

결론: 몽골이 깨어나고 있다!

초원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금과 석탄과 구리 광석으로 몽골의 정치와 경제가 사회가 요동치며 깨어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을 다녀온 200,000 명의 몽골인들을 비롯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스웨덴, 체코, 호주를 다녀온 백 만 명이 넘는 몽골인들이 몽골의 가정과

거리와 사회와 직장과 정부를 변혁시키고 있다. 그 과도기에 선교사들은 서서히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 그런 변화를 먼저 겪었던 러시아의 모스크바처럼 말이다.

그런데 몽골은 현재 **보냄을 받은 선교사 시대**에서, 자국민들이 신속하게 선교를 선교사들의 손으로부터 이양 받아 **자국민 선교사들을 보내는 선교사 시대**로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 결과 몽골인 자국민들이 지방 전도와 외국에 선교사 파송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보냄 받은 자들인 선교사 시대에서, 자국민 원주민 몽골인들을 외국의 선교지에 보내는 파송의 시대로 치닫고 있다. 그 실례가 3 일전에 선교사 집에 찾아온 자르강 싸이항 목사(제자)는 지난 7 년 동안 중국과 중국내 내몽골, 그리고 북한에 65 회 선교여행을 다녀왔고, 제자훈련과 설교를 진행해 왔다고 고백했다. 13 년 전(1999 년)에 그는 미국 엘바인 베델교회에서 지어준 작은 교회에서 조사로 일하며 막 신앙에 불을 지피던 청년에 불과했었다. 그는 고층 건축 공사장에서 떨어진 영구 불구자에 불과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신 후 다른 불구자 여성과 결혼시킨 후 새롭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셨다. 그 후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Eagle(독수리)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경험을 쌓게 하신 후에 이제는 선교사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고, 몽골의 영혼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놀라운 시대를 보게 하신다. 나는 이 몽골이 시대를 **“기적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다.

선교논단 II

선교사의 약함

정태화 목사

러시아 연해주 선교사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후 12:10)

선교는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이자 이 세상 어떤 축제보다 아름다운 축제이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다. 복음이 닫혀있는 지역에 선교사가 복음의 문을 여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일이다.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되고 새로운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역사의 중심이며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사역이 선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장 아름다운 축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선교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지불해야만 한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사역한지 12 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영적으로 황무한 이곳에 열 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으로 달려왔는데 지금 이미 여섯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일곱 번째 교회가 기도 가운데 준비 중이다.

선교사에게는 사역의 열매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12 년 선교사역의 결과 내 안에 많은 약함도 가지게 되었다.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약해져버린 나의 모습은 정말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다. 약해진 모습이 꼭 전쟁에서 패한 패전 병의 모습처럼 참 나약해 보인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약할 그대 곧 강함 됨을 고백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부족한 선교사가 약할 때 강하게 친히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 하며 찬양하려 한다.

1.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

바울은 남들이 알 수 없는 큰 계시를 받았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강함이 있었지만 그 강함 보다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기뻐했다.

언제부터인가 단기 선교팀이 오면 부끄럽지만 약해진 나를 많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선교지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나의 연약함, 그리고 실수를 진솔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위로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고백을 통해 단기선교를 다녀간 선교팀원들이 더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자연스럽게 약함을 숨기지 않고 더 자랑하게 되었다.

참으로 선교사는 늘 약함 속에서 살아간다. 영적인 공급보다는 소모가 많은 선교지의 삶은 늘 영적 빈곤과 탈진을 가져온다. 90 년 동안 교회가 없는 미전도 지역에서 한 영혼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 나날이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의 긴박함은 늘 초조함과 스트레스로 어깨를 무겁게 만든다. 이러한 선교지의 특수한 상황은 모든 부분에 있어 작은 감정의 부분까지 자신을 너무나 약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할머니들처럼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서 울고 있고, 싸우는 액션영화를 볼 때 는 소름이 끼쳐서 눈을 감게 된다. 신경쇠약 환자처럼 작은

일에도 예민하여 잠을 못 이루고 대인 기피증에 무기력 증,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웬지 서러워 눈물이 나기도 한다. 상처를 잊기 위한 자연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아무런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메모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바보가 된듯하다. 글을 쓰기 위해서 컴퓨터 작업을 30 분 정도만 집중해서 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멀미가 난다. 책을 읽어도 글이 눈이 들어오지 않는다. 스스로 이런 연약한 선교사가 선교지를 지키고 선교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이다.

2. 바울은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 됨을 자랑했다.

바울은 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라고 했다.

처음 선교지에 나와 넘치는 열정으로 열심히 전도를 다닐 때에는 열매가 작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전도를 나갈 힘이 없을 만큼 약해 졌을 때 성도들이 선교사를 끌고 다니기 시작 했고 그때부터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전도를 받은 사람이 또 자기 가족과 친구 전도를 부탁하면서 전도의 길이 계속 열리게 되었다. 선교사의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셨다.

우리 교회의 힘은 체계적인 성경공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성경공부모임을 만들어 가르치고, 참석하도록 강권하고 결석하면 심방을 해서 끝까지 성경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끌어내었다. 첫 번째

그룹부터 일곱 번째 그룹까지는 그렇게 열정과 힘을 다해 가르치고 가르쳤지만 성경공부를 끝까지 다 마쳐도 딱히 이렇다싶은 믿음의 결실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1 단계 성경공부를 마쳐도 2 단계 성경공부를 이어갈 수 가 없었다. 이미 지쳐서 더 이상 그 전처럼 힘 있게 끝나갈 힘도 없었다. 그런 가운데 이전의 젊은이들 위주로 되어있던 그룹들과 달리 여덟 번째 그룹은 나이가 많은 60 대 할머니 세 사람이었는데 그 모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것이었다. 보통 한 시간 하는 성경공부인데 배우려는 열정에 선교사를 놔 주지 않아 공부가 두 시간 이상 계속되었고 세 사람의 할머니들은 선교사에게서 떨어지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적고 또 적었다. 성경공부 모임시간이 주일 저녁시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인가는 할머니들은 저녁밥까지 싸와서 먹여가며 선교사를 더 붙잡아 두며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밥을 주면서 가르칠 때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니 밥을 얻어 먹으면서 가르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할머니 세 사람이 2 단계 성경 공부, 3 단계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고, 얼마 전 세 사람 모두 권사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세 사람의 성장을 시작으로 수요 기도회와 새벽기도회가 만들어졌고 성전 건축도 하게 되었다. 은혜를 받은 할머니들이 주위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여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했다. 내가 가장

약했을 그 때 교회는 가장 큰 열매를 맺었다. 이제는 바울이 고백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는 고백의 말씀이 참으로 가슴으로 느껴지고 지금의 세워진 교회들은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3.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재충전을 받았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면 안디옥 교회에서 재충전을 받는 시간을 두었다. 충전이 되면 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충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교적 요충지였던 안디옥에서 쉼을 얻었다.

전쟁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본국으로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건강할 때는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건강관리를 하지만 큰 병이 들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복시킬 수 없다. 그때 필요한 것이 병원이다.

선교사가 한국에서 안식년을 할 경우 충전받기가 참으로 어렵다. 약한 선교사를 이해하고 세워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아픈 선교사가 한국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아무데도 없다. 안식년 동안 정착할 처소가 없어서 자녀들을 데리고 이곳 저곳 집을 옮기다 보면 쉼을 얻기 보다는 더 고생하다가 선교지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다.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오지에서 10 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탈진으로 인해 귀한 선교사를 잃어버릴 수 도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약한 선교사를 이해하고 선교사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 주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선교사를 치료하고 재충전하는 귀한 일들이 유니버설 케어를 통해서 이루어 지고 이러한 사역들이 한국 교회에 확산되길 기도한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I

경찰 곤봉과 신학교 부지

김우섭 목사

러시아 로스토크 나다누 선교사



그토록 구하고 찾던 신학교 부지를 얼마 전 매입하였다. 1년이 넘는 세월을 찾은 것이다. 시내는 아니지만 매입비에 비하면 만족스럽다. 1200 평방미터의 넓은 공간에는 산딸기, 사과, 배, 자두, 체리, 살구, 포도, 블루베리 등 갖가지 과실 나무로 가득하다. 번잡한 도심 도로에서 직선 거리로 1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임에도 이곳은 도시와는 딴 세상이다. 조용하고, 주변은 과실나무로 가득하며, 도심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들이 한 두 채씩 집을 짓기 시작하여 이제는 이웃하며 살만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곳이다. 아직은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은 울퉁불퉁한 도로를 조심스레 달려야 갈 수 있는 곳, 전기와 수도는 공급되지만 가스의 혜택은

아직 누릴 수 없는 곳이다. 이제 며칠 있으면 부동산 등기 서류를 받게 된다. 금년에는 건축허가와 기초공사를 하고 내년 봄 즈음부터 벽돌 쌓기를 할 계획이다. 모든 일들이 꿈만 같다. 물론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내 살이라도 꼬집어 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물어 볼 것 같다.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도 성결교회 예배당에서 잘 지내 왔지만 그래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건물이 생긴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만든다. 또한 더 많은 주의 선한 일들을 기대해 본다. 부지를 구입하며 있었던 일을 되살려 본다. 땅 주인인 노부부를 모시고 서류 작성을 위해 법률 사무소로 향했다. 장시간을 기다려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은행으로 향했다. 작은 돈이 아닌지라, 또한 땅 주인인 노부부도 금전을 손에 들고 다니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 은행에서 곧바로 이체하기로 하였다. 모든 부지대금은 할머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모든 금액을 할머니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되는 데는 사연이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재혼으로 만난 사이이다.

할아버지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으나 할머니에게는 자녀가 없다. 할아버지는 평소 자신의 자녀들이 할머니를 잘 섬기지 않음을 보고 할머니가 홀로 되었을 때를 생각하신 것이다. 할머니가 홀로 되었을 때, 노후를 고생가운데 보내지 않도록 배려를

하신 것이다

실은 할아버지께서는 현재 전립선 암을 앓고 계신다. 의사가 수술을 거절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다. 건강으로 인해 더 이상 과수원을 돌보실 수 없게 됨으로 과수원을 팔기로 결정하셨고, 모든 매매대금을 할머니에게 주신 것이다.

은행에서 미화를 루블로 환전하여 할머니 계좌에 입금해야 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다. 얼마 전까지 적혀 있던 환율이 갑자기 떨어졌다. 다른 은행에 비해 생각보다 낮은 금액이었다. 직원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도록 요청했다. 은행 직원은 설명대신에 환율이 적힌 곳의 날짜를 확인하라고 했다. 그것이 오늘



환율이라는 말이다. 나는 왜 환율이 우리가 은행에 들어 왔을 때와 지금 환전하려는 때의 환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렇지만 직원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설명을 못하다가 점심 이후에는 환율이 변동 될 때가 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해댔다. 마음이 무척 상했다. 방법이 없었다. 그 많은 금액의 미화를 당장 인출하여 타 은행에서 환전하는 일도 어려웠다. 현금지급기에서는 하루에 5 천불이상 인출이 안되기 때문이고, 창구에서 인출할 경우 수수료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은행은 이러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지라 임의로 환율을 낮춘 것이다. 마음의 평정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한국 같으면 은행 상사를 찾아 항의를 하던지, 다른 방법을 취해볼 터인데 이곳은 다 한통속이라 그것도 쉽지 않다. 겨우 생각을 정리했다.

**'어찌 이러한 좋은 일에 시험이 없으랴!
이곳이 선교지가 아니던가!'**

은행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 오는 길이었다. 다리가 불편한 노부부를 모셔다 드리기 위해 차를 몰았다. 평상시대로 강변도로에서 중심가로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그런데 차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신의 흰색과 검정색을 교차하여 칠한 곤봉을 가지고 내 차를 세우라고 하였다. 나는 단지 서류검사하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했다.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경찰은 얼마 전부터 그곳에서 좌회전이 금지 되었다고 했다. 그렇게 경찰이

설명하고 있는 중에도 다른 차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아차! 싫었다. 또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이곳도 교통 체증이 늘어나면서 도로법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문제는 계도 기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저 교통 표지판을 세우고 경찰은 목종은(?)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다음은 그물에 걸려든 고기들의 호주머니를 털도록 하여 쓸어 담으면서 다음부터는 위반하지 말라고 충고까지 준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랴. 그물에 걸려 들었으니 말이다. 차안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나와서 사정도 해보고, 심지어는 경찰에게 '내 얼굴이 부끄럽다!' 고 소리를 치시면서 절뚝거리는 발로 길을 가로 질러 가버리시기까지 했다. 그다음은 나도 말하기가 어렵다. 힘없는 물고기는 그들의 요리감이 된 것이다.

많이 지쳐 있었다. 그렇지만 건축 설계사와 미팅이 약속 되어 있어서 약속 장소로 향했다. 만나기로 한 설계사는 약속 시간보다 무려 3 시간 늦게 도착 했다. 지인의 교회 성도 인지라 웃는 얼굴로 맞았지만 쭈뼛 굵은 배는 연달아 신호를 보내 왔었다.

힘든 날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했다. 백년 대계를 위한 큰 일의 일부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어찌 이런 귀한 일들이 아무 시험없이, 어려움 없이 진행 될 수 있겠는가! 아무 일없이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감사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이기에 그러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 주님만 바라 보라는 영적 신호탄으로 알고, 더욱 영적 뱃심을 길러야 하겠다.

기도제목

1. 신학교 사역을 위해

- 1) 새학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사들을 통해 은혜로운 강의가 진행 되도록.
- 2) 건축 허가가 늦어 지지 않고, 또한 금년에 기초 공사까지 이루어 지도록.
- 3) 노보로시스크 (흑해 연안의 항구도시) 도시에서 시작될 성경학교를 위해-금년 9월에 시작 될 예정.
- 4) 타간록시에서 계속 되고 있는 신학교 사역을 위해(현재 8 명의 신학생이 공부 중에 있음)
- 5) 7 명의 졸업 예정자들이 논문 등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내년 2 월 졸업 하도록.
- 6) 신학교 사역에 협력 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 위해.

2. 교회 사역을 위해

- 1)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이 주의 일군들로 성장해 가도록
- 2) 성도들이 성령의 중생케 하시 은혜를 깊이 체험 하도록
- 3) 선교사의 성령 충만을 위해

3. 가정을 위해

- 1)지민이의 진학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공부할 예정임). 현재 11 학년에 재학 중이며, 내년 9 월에 학력 고사를 치뤄야 함.
- 2)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선교지에서 온 편지 II

여기, 바기오, APTS!!



GBT 선교회
엄천영, 안수아 선교사

이곳에 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여기는 일주일이 넘게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계속 비만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름다운 햇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연일 폭염으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더군요. 다른 곳,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알맞은 모습으로 함께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이 사는 곳을 소개하며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의 방문까지 합치면 필리핀에 온 것은 총 4 번이 됩니다. 처음에는 신혼여행으로 보라카이 섬을 방문했고, 그 다음 두 번은 서문교회에서 비전트립으로 남쪽 민도로 섬을 방문했습니다. 이전의 세 번의 방문과 지금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필리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필리핀을 더 많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선교지라는 곳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이해를 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바기오라는 특색 있는 도시에, APTS 라는 또 다른 문화를

가진 학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APTS 의 문화를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난 후에는 바기오의 문화를 익히는 단계로 발전해야 할 듯 합니다.



<APTS 의 주된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

이곳 바기오라는 도시는 그 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필리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코 덥지 않습니다. 우기라는 계절적인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맑은 날에도 그렇게 심하게 덥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후로 평균 기온이 20 도를 넘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짧은 옷보다는 긴 옷이 굉장히 유용하고, 집에는 난방과 관련된 기구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여기는 해발 1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온과 기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낮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가지는 독특함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 중 몇 가지는 어학연수를 위해 오는 젊은 한국 학생들이 많고,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서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거나 도심의 스타벅스에 가면 한국말과 글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기압이 낮아서 끓는 점이

낮습니다. 한 번은 끓는 물이 손에 튀었는데 그렇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많이 따끔거렸을 텐데, 그렇지 않더 라구요. 또 다른 것은 기온이 서늘하여 여름의 수도라고 불리우며, 여름이면 대통령도 이곳에 와서 휴양을 하거나 업무를 본다고 합니다.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250 여 km 있는 이곳은 루손 섬(마닐라와 바기오가 있는 섬)의 북쪽으로 가는 관문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많은 공산품과 농산품이 이곳을 거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한 낮은 기압으로 인하여 쉬이 피로하고, 장기적으로는 여성 분들의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현재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곳의 물가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많이 쌀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것은 예상일 뿐 평균적으로 한국 물가의 70%정도이며, 품목에 따라서는 한국보다 더 비싼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생활을 위해서 장을 세 군데에서 봅니다. 하나는 한국의 대형 마트와 같은 SM 이라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재래시장이며, 마지막은 한국 상회입니다. 재래시장은 주로 과일, 야채와 고기를 신선하게 구입할 때 갑니다. 규모가 꽤 크고, 어느 곳이나 그렇겠지만 재래시장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물건을 구입할 때 필리핀 꼬마부터 청년까지 장을 본 물건을 들어주며 따라 다니는 캐리보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장을 보러 가면 항상 캐리보이에게 돈을 주고

짐을 들게 하는데, 제가 따라가는 날에는 제가 캐리보이가 되어서 졸졸 따라다닙니다. 물론 저에게는 어떤 돈도 지불하지 않구요. SM 이란 곳에서는 공산품과 가공된 식품을 구입합니다. 어떤 품목은 한국보다도 더 다양한 것들도 있습니다. 재래시장보다 비싸지만, 가공식품이나 공산품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용을 합니다. 이곳의 물은 석회수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장기간 마시거나 양치물로 사용을 하면, 담석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치아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류수를 항상 구입합니다. 10 리터에 2,100 원 정도 하니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하지만,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해서 그런 걱정을 안하고 살았었는데요^^;; 가끔씩 한국 상회에 가서 추억의(?) 식품을 구입합니다. 당면이나, 쫄면, 아이들 과자 간식 같은 것들요... 하지만 매우 비싸답니다. 이곳에서 장을 볼 때면 항상 곱셈을 합니다. 여기 화폐 단위인 페소를 한국 화폐단위인 원으로 환산을 하는 작업을 늘 하죠. 이런 곱셈의 과정이 의미하는 바는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면 한국 말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영어로 바꾸니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하겠습니까? 영어를 그냥 영어로 알아듣는 것,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영어에 대한 적응이라 할 수 있겠는데, 아마도 그런 날은 제 평생에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APTS(Aisa



Pacific Theological Seminary)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오순절 계통의 신학교입니다. 이곳 신학교와 저희 선교 단체가 협약을 맺어서 신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받기위해 영어가 더 필요한 분들과 저희와 같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영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은 여기서의 학비를 면제 받습니다. 점심 시간 전에 채플이 있고, 거기서 찬양과 말씀, 기도를 합니다. 한 시간 남짓의 시간이지만, 때로는 정말 좋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설교도, 찬양도, 기도도 영어로 하는 바람에 항상 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설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해 정도가 다릅니다. 설교자가 농담을 하거나 웃긴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웃는데,

저만 멀뚱하니 바라볼 때의 그 심정이란... 반대로 웃긴 이야기를 알아들어서 함께 유쾌하게 웃을 때의 그 마음이란... 물론 제가 다녔던 신학교와는 신학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부분이기에 거기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학교 안의 시설은 이곳에서는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인터넷도 빠른 편이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적응이 참 안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웬만한 문서나 자료는 이메일로 전송을 하고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려면 전송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받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는 곳이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지만, 한국의 편리함 속에서 살아가 온 저로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며, 적응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언어로 인하여 오는 위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위축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저를 바라봅니다.

이곳 문화는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의 독특한 문화와 저의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느끼는 저의 반응입니다. 그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문화를 이곳에서 다른 문화를 겪게 되면서 더 소상하게 알게 됩니다. 가족 단위로 해외에 나온 경험이 전무하고, 단기간이 아니기에 많은 긴장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충실한 저의 모습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의 문화는 주어진 것에서만 사고하고, 반응하며, 안주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장점일 수 있지만, 변화 속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자리에서 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레 연결이 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한 달여 동안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전을 통해서 자꾸만 새로운 정보를 얻기보다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얻은 정보를 관찰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좋은 점이 분명 있지만, 이런 모습으로 시간을 더 보낸다면 좋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조금 기지개를 켜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요즘 채플에 참석하면서 다양한 설교자들의 다양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더욱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당신과의 친밀함과 순종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만큼 현실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 기간이 건강한 선교사로서 준비되어가는 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과 순종의 유익을 누리도록 두 손 모아 주세요.



<해나와 리나가 다니게 될 Grace Bible Academy>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학교가 생겼습니다. 한번은 이곳 학교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리와 비용, 비자 등의 문제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을 수 없었는데, 우연치 않게 소개를 받은 학교에 방문하였는데, 현재 저희의 사정과 앞으로의 저희 가정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7월 마지막 주부터 등교를 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태풍으로 인하여 학교가 휴교를 하는 바람에 아직 첫 등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첫 수업이 8 시에 시작을 하여서 7 시 20 분 지프니를 타고 가야 합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준비해야 하고, 도시락도 챙겨야 하다보니 아침이 바빠졌습니다. 첫날은 바람과 비가 심한 상황에 휴교령이 내린지도 모르고 새벽부터 잠을 설치가며 일어나 아이들 준비시키고, 도시락까지 만들어 지프니를 타러 갔더니 웬걸요!!! 휴교라네요. 허탄하게 돌아오는 부모들과는 달리 해나와 리나는 싱글벙글... 역시 학교 가기 싫은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봅니다.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서 함께 두 손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연락처

인터넷 전화 070-8265-7357

전자 우편

chonsue@naver.com / sueaahn@naver.com

기도제목

1. 건강하게 온 가족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학교가 결정되어짐에 감사드립니다.
2. 적극적으로 삶에 임하며, 이곳에서 만나는 공동체에서의 유익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3. 해나, 리나가 학교에서 귀한 것들을 배우며 즐겁게 생활하고, 요한이가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5. 파송교회인 서문교회와 협력교회와 단체 (오산 서문교회, 유니버설 케어)가 주안에서 부흥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성장해가기를

4. 파송교회의 여름 수련회와 비전트립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발견하며, 교회의 비전이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선교지에서 온 편지 III

여름 소식을 나눕니다!

주바울목사
B국 선교사



모두 평안하신지요?

한국에 폭염이 몰아치고 있다고 듣습니다.
지구적인 기후 변동이,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름 소식을 나눕니다.

저는 7 월 하순에 남쪽 B 시에서 열린
목회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 지역은 베트남 최대도시인 남쪽의
H 시에서도 4 시간을 더 가는 곳이었습니다.
시외버스에는 각 지방으로 가는 손님들이
빼곡히 들어찼는데, 가만히 세어보니 24 인승
미니버스에 46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을 태우는 차장의 솜씨도 대단하거니와,

아무 말 않고 함께 불편을 감수하며 가는
베트남 사람들의 관용성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주변이 많은 나무와 숲들로
우거진 곳인데 종종 옛날 집들이 보이는
그곳에, 산뜻하고 새로 지어진 교회건물이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인 Q 목사님이 처음 사역하려
그 지역에 왔을 때는 주변에 믿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교회도 40 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H 시의 한인교회의

지원으로 지어졌는데, 주변 지역을 위한 선교센터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통상 무분별하게 교회 건축을 지원하는 경우는 문제들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적절한 도움이, 적절하고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아시아 성서유니온 선교회의 J 사역자와 함께 하게 된 훈련 프로그램에는 40 명의 현지 목사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도 왔지만, 40km, 70 km, 혹은 120km 떨어진 곳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성경강해와 목상훈련이었습니다. 참여자의 절반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겸손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머무는 북쪽에서 오래 전에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도 있어서, 같은 동향사람 만난 기분으로 반가이 교제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점차 남쪽 발음에도 조금씩 익숙하게 되면서 이제는 제법 이해하게 되었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중부시골에서 오신 분들의 경우는 정말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현지 표준어 구사 지역 분들도 중부시골 지역 말은 어려워하니, 외국인인 저는 더욱 그렇겠지요.

침례교 목사님들이 많기는 했지만,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었던 그 시간이 저에게도 참 소중했습니다.

이제 여름사역을 마치면서, 저도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할 사역을 집중하고, 위임의 필요성이 있는 사역을 위임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부분은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1. 이번에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현지목사님들이 말씀과 목상의 나눔 안에서 계속 서로를 세우고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2. '매일성경'을 바탕으로 한 목상사역은 토대가 마련되었으니, 특별히 출판 및 보급사역은 이제 더욱 전문화되기 위해서 더 적절한 사람이 참여하거나 위임 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역에 참여하는 두 현지인과 따로 목상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인도되게 하소서. 특히 9 월 말에 이곳에서 있을 지도자 목상훈련 및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 통해서도 적절한 현지 자원들이 발굴되게 하소서.

3. 주일 예배모임 사역에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하면서 지체들을 일일이 챙기지 못한 결과 형제 두 명이 떠났습니다. 주변 환경의 압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굴복한 것 같습니다. 다시금 주일 모임을 두고
주님께 여쭙고 인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장래 정식 교회의 모델로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교회개혁 사역을 내려놓고 저의 일을
'가르치는 (센터) 사역' 중심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인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걸어가는 가운데 바른
판단과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전도의 기회들도 여전히 열려서
제가 순종하길 바랍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에 감사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또 소식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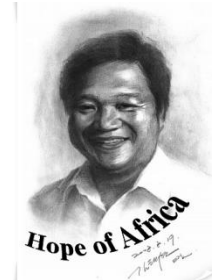
**2012 년 8 월 15 일 베트남에서
주바울, 문줄리, 하은, 다은, 형준 드림.**

선교지에서 IV

남아공에서 전해드립니다.

배성호 목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



할렐루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모든 동역자와 교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지난 두 달의 시간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은혜가 충만함과 동시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상 기온과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영적 도전으로 더욱더 간절한 기도와 영적 무장이 필요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 해 보아도 성령께서 입혀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과 남아공 선교지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시대의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분이 주실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 시켜 주실 것을 동역자님들과 모든 교회와 함께 기도 드리기를 소원 합니다.

1. 남아공을 위한 기도



남아공에는 1960년 대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려 많은 사회적 기반들과 집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수생명교회가 있는 선교지에도 도로 곳곳이 유실 되었고 200만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메인파이프가 파손되어 지역적으로 10여일 넘게 물을 공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옥이 무너져 내리고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 국민

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북쪽 지역은 갑작스레 내린 폭설을 미리 대비 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일 자리를 잃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사회의 혼란과 범죄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 일어난 남아공 백금광산에서 일어난 광부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과 경찰의 발포로 인하여 34명의 사망자와 78명의 부상들이 발생한 사건은 현재 남아공의 영적 상황과 사회적 현상들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한 단면 이었습니다. 세계 3위의 규모로 백금을 생산하는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들 3000명이 일어나 무기로 무장 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상황에서 경찰의 저지선을 넘어 무모하게 돌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모한 투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상고마(무당과 같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투쟁에 나서기 전 자신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고마를 찾아가 점을 보며 주술을 하여 줄 것을 원했습니다. 상고마들은 이들을 위하여 아주 특별한 약을(?) 조제 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조제 해 준 약을 먹으면 총알에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고마는 사람들의 영을 혼미케 하고 그들을 영적 장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총기를 사용하여 두 명의 경찰이 희생을 당하면서 경찰은 최후의 저지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상고마가 조제 해 준 약을 먹은 사람들을 이끌고 저지선을 넘게 하였고 무모 하게 선을 넘어 오다가 위협을 느낀 경찰들의 발포에 34명의 사망자와 7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 투쟁과 이상 기온 속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고통을 통하여 상고마들을 붙들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도록 도모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움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 할 수 있는 길은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 하는 것 이외는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짙은 어둠이 깔려 있어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춤이 없음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를 보고 경험하며 믿기 때문입니다. 남아공의 현지교회에서도 이를 위한 기도가 시작 되었습니다. 예수생명교회와 현지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평강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의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 물러 갈 것을 선포 하며 함께 기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드립니다.

2.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회에 임한 은혜



지난 7월 3~6일까지 3박 4일 간 240여명의 중남부 아프리카 16개국의 선교사님들이 모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나바 선교 회장이신 이강천 목사님을 감사로 모시고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에 대하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3대 직무인 케르그마(전도), 디다케(가르침), 코이노니아(교제) 가

운데 하나인 “친교, 나눔”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친밀한 교제이며 둘째,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와 관계를 말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데 필수적인 일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 가시고 보내 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장차 세워 가실 교회의 모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모델은 가고 오는 모든 교회의 영원한 로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 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2~47)

보혜사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그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표적은 저의 영원한 로망이지만 나의 삶은 그 표적에서 빛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마음의 간절한 열망으로 남아 있는 새로운 삶의 소원이 제9회 선교대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 인하여 저의 삶과 사역의 목적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사역지 마다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3. 예수생명교회 위에 임한 은혜

두 개의 컨테이너에서 드러지는 예배는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다는 기쁨 그 이상의 기쁨과 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배와 찬양 그리고 교제를 통하여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청소년까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매일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교회에 머물고자 하는 강한 마음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생명교회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은 현재 리더십 훈련을 받고 있는 리더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는 변화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리더들의 일체감을 더 하기 위하여 티셔츠를 맞추었습니다. 또한 이들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세우고 주일 예배 후 찬양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찬양 연습이라는 말은 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처음 모여 찬양을 시작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음역을 찾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코사족에게 주신 특별한 음악적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느끼고 체험 하게 합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니 그 소리가 주의에 더욱더 크게 울려 퍼져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위의 청년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5주가 흐른 지금은 새로운 멤버들도 함께 하고 있으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그들의 찬양을 자제 시키느라 진땀이 나곤 합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일을 하다 손가락 4개를 잃은 아픔을 당했던 청년 시네가 찬양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 교회에 머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예배가 끝나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언니 오빠 그리고 형들이 부르는 찬양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싶은 찬양의 열망을 보면서 그들을 지도 할 동역자에 대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찬양을 드리며 이루어 가는 예수생명교회의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우리의 로망인 초대교회로의 회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기쁨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컨테이너를 두 개를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붕을 씌우고 내부를 꾸미고 하는 일들이 남아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귀한 교회를 통해서 예물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선교편지를 통하여 그림을 보내드렸던 것 같이 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생명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

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동안 예수생명교회에서 함께 동역 하시던 와이즈맨 목사님께서 현지 침례교회의 청빙이 있어 7월 첫주부터 임지를 옮겨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생명교회로서는 너무도 아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와이즈맨 목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분의 목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 할 것입니다.

4. 포트엘리자베스 한인 청소년들의 예배

5월부터 시작된 피이의 한인 청소년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이국 땅에서 생활하면서 사고와 생활의 방식이 현지인과 되어 가고 있지만 현지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과 진정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 버리면서 심리적 방황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한인청소년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한인 청소년 예배는 전체가 드리는 예배를 마친 후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대학부로 나뉘어 공과공부와 함께 코이노니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한인청소년예배는 이곳으로 오는 한국의 교환학생이나 잠시 언어공부를 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목표를 이루고 귀국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을 때 갖는 외로움과 공부하며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며 극복 해 나가고 용기와 격려 그리고 위로를 얻는 모임이 되어감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피이 한인청소년예배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며 하나님만이 삶의 기준이요 가치임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장차 청소년예배가 피이에 계신 모든 한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 가정에 임한 은혜

올 해는 큰 딸 영은이의 대학입시 준비로 인하여 저희 가정의 삶이 불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은이의 학업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 매일 드리던 가정예배의 시간이 저녁 9시 그리고 10시 이후로 드리게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감사한 일은 영은 지은 하은이가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해에 로마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고 올 해는 에베소서로 시작하였는데 모두 마치고 지금은 사복음서를 시작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가정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과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강한 열정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이 그들의 평생에 최고의 가치를 갖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갖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굳게 세워지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영은 지은 하은이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영은이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지은이는 언제나 남을 배려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은이는 아티스트적 달란트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달란트와 각자 가지고 있는 꿈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은이의 초점과 삶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영은이를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와 영은이와의 대화를 통하여 의사에 대한 확실 하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 일입니다. 그것은 영은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로서 남은 인생도 선교지에서 드리기를 원하며 코사족을 섬기다 이 땅에 묻히기를 소원하는 작은 자에게 또 다른 선교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녀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 드릴 뿐입니다.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예수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를 소원하며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웨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에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바루크 헬케보드 말쿠토 레올람 바에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4~5)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하나님을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이 저의 전인격과 삶에 사무쳐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분을 안다는 것은 그 분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과는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분을 사랑하고 안다는 것은 그 분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전인격적인 그 분과의 만남 속에서 그 분의 성품과 그 분의 인격을 알고 그 분을 사랑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 분의 성품과 그 분의 인격을 아는 사람은 그 분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의 인격과 성품을 알아 그 분을 사랑함에 온 마음과 온 영과 온 힘을 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 하는 사람은 모든 관심이 그 분의 행하심에 있기에 각 시대 마다 행하시는 그 분의 행하심을 보며 전인격을 다하여 그 분에 일에 동참하는데 주저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분이 행 하시는 그 일에 전 삶을 드려 섬기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생애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성도들 위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남아공에서 배성호 한은경 영은 지은 하은 올림

선교지에서 V

지체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신동주목사
필리핀 앵겔레스

지체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난 7 월 29 일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양육하던 PAC 지체들(클라리스, 자닌, 모니카-사진 가운데 3 명)이 자신의 신앙을 공동체 앞에 고백을 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저의 든든한 제자요,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늘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이들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날들이 되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하여 주십시오.



순교를 다시 생각하며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이곳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순교를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순교는 늘 아주 가까이 저의 곁에 있었습니다. 지난 8 월 12 일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은 빌리지 안에 살면서 왕래가 있었던 통합측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달여 기간의 폭우로 3 주 동안이나 가보지 못한 사역지의 영혼들을 생각하며 불어난 강을 건너다 당한 일이었습니다.** 36 세의 젊은 나이에 어린 두 아들과 사모님을 남겨두고 그렇게 소리없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떠나 보내며 선교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인생의 짧고 긴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임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소비하고 헌신하며 순교자다운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겨진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고인을 잃어버린 슬픔에 잠겨있을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 새롭게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던 사역지에 후임자가 파송될 수 있고 가족과 파송교회가 순교자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이어받아 선교에 헌신하는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아뢰어 주십시오.

신입생환영회

8 월 24 일 PAC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6 월 달에 한국을 다녀온 관계로 모든 사역일정이 조금 늦추어 저서 이제야 신입생 환영회를 했습니다. 신입생 6 명과 지체들 6 명이 함께 모여 강의와 교제, 축복과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2 명은(제엔, 비키) 천주교인데 이들이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영적인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시오. 이들을 통해 캠퍼스 복음화와 제자양육, 재생산의 사역이 계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필리핀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달여 간의 긴 태풍을 동반한 폭우가 끝났습니다. 요즘은 전형적인 필리핀 날씨로 접어든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서서히 비가 오는 날이 줄어들고 건기로 접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폭우로 준비를 소홀히 했던 건축준비가 한창입니다. 건축을 준비하는 사람들(한도균, 김병남, 신동주)이 하나님앞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준비하며,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건축을 통해 받으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귀한 장소가 되도록 아뢰어 주십시오.**

10 월 첫째 주 부터는 본격적인 건축을 시작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비품(에어컨 2 대, 강대상 1 개, 음향시스템 일체, 흰색 플라스틱 의자 100 개, 벽걸이 선풍기 10 개, 바닥장식재(100 평규모), 대형냉장고, 세탁기 2 대)이 채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와 젊은이 사역을 위하여 후원을 약속하셨던 분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기도를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9 월달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가을이 다가오는 소리를 아침 저녁으로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이곳 필리핀은 늘 무더위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날짜를 보며 가슴으로나마 가을의 분위기를 느끼며 향수를 달래고 있습니다. 주안에서 성숙하는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필리핀에서 글을 올립니다. 강건하십시오.

연락처 070-8245-2948 / 신동주선교사

기도제목

1. 새롭게 양육하는 지체들이 주님을 만나며 믿음이 자라도록(네니따, 애플, 제옌, 아이린, 비키, 라이언, 쉘라, 두스)
2. 건축을 준비중인 사람들(한도균, 김병남, 신동주)이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3. 10 월 첫째주부터 건축을 시작할 예정인데 필요한 재정이(4,000 만원) 모금되고 속히 완공되도록
4. 건축중에도 경건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해지도록

선교사 기도제목

러시아 로스토프 나 다누 김우섭선교사



1. 신학교 사역을 위해

- 1) 새학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사들을 통해 은혜로운 강의가 진행 되도록.
- 2) 건축 허가가 늦어 지지 않고, 또한 금년에 기초 공사까지 이루어 지도록.
- 3) 노보로시스크 (흑해 연안의 항구도시) 도시에서 시작될 성경학교를 위해-금년 9 월에 시작 될 예정.
- 4) 타간록시에서 계속 되고 있는 신학교 사역을 위해 (현재 8 명의 신학생이 공부 중에 있음)
- 5) 7 명의 졸업 예정자들이 논문 등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내년 2 월 졸업 하도록.
- 6) 신학교 사역에 협력 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 위해.

2. 교회 사역을 위해

- 1)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이 주의 일군들로 성장해 가도록
- 2) 성도들이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 하도록

3) 선교사의 성령 충만을 위해

3. 가정을 위해

- 1) 지민이의 진학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공부할 예정임). 현재 11 학년에 재학 중이며, 내년 9 월에 학력 고사를 치뤄야 함.
- 2)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몽골 황필남선교사

www.pnhwang.com



1. 여름 몽골 단기팀들이 뿌린 사역의 열매들이 온전히 맺혀질 수 있도록
2. 이양해준 온 민족 추수교회와 모직 목사가 목회를 신실하게 계속하도록
3. 지방 교회가 6 개가 지난해 더 자립하였는데 남은 교회들이 더 자립하도록
4. 선교사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도록
5. 가을에 미국 인디애나 주에 몽골인 작은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6. 가을에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덴버 단기 선교를 위하여
7. 가을학기에 버지니아 크리스찬 대학에 몽골인 학생 45 명을 잘 가르치도록
8. 몽골 우우르딩 계계 교회 개척 20 주년 기념 연합집회를 위하여(11 월 1 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배성호선교사

www.josephbae.com



1. 성령의 지혜를 품은 일꾼들을 일으키소서
2. 이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날 선교사 후보생들을 일으키소서
3. 예수 생명교회의 부흥과 한 영혼, 영혼들을 위하여
4. 2012 년도 비전을 위해서

디아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1. 새로운 신입생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2. 러시아어 예배 리더와 부흥을 위하여
3. 키르기즈 예배와 리더 루슬란 전도사와 부흥을 위하여
4. 학생들을 두고온 가정과 식구들을 위하여
5. 기숙사 생활과 직장 문제와 안전을 위하여
6. 신학교 운영과 졸업생 후원의 재정적 문제를 위하여
7. 좋은 교수진, 좋은 통역자, 후원자를 허락 하소서
8. 디아스포라 신학교 졸업생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9. 후원교회와 기업과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

러시아 연해주 정태화 선교사



1. 하나님께서 연해주에 북한 선교에 대한 많은 비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 연해주에 많은 기점을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베프교회도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 쓰임 받을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연해주에는 아직 교회가 없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전도 지역에 복음의 문이 계속해서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을 맡고 있는 담당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서 부흥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4. 홀로 계속되는 사역에서 탈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앙겔레스 신동주 선교사



1. 새롭게 양육하는 지체들이 주님을 만나며 믿음이 자라도록(네니따, 애플, 제옌, 아이린, 비키, 라이언, 쉐라, 두스)

2. 건축을 준비중인 사람들(한도균, 김병남, 신동주)이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3. 10 월 첫째주부터 건축을 시작할 예정인데 필요한 재정이(4,000 만원) 모금되고 속히 완공되도록

4. 건축 중에도 경건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해지도록

B 국 주바울 선교사



1. 이번에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현지목사님들이 말씀과 묵상의 나눔 안에서 계속 서로를 세우고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2. '매일성경'을 바탕으로 한 묵상사역은 토대가 마련되었으니, 특별히 출판 및 보급사역은 이제 더욱 전문화되기 위해서 더 적절한 사람이 참여하거나 위임 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역에 참여하는 두 현지인과 따로 묵상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인도되게 하소서. 특히 9 월

말에 이곳에서 있을 지도자 목상훈련 및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 통해서도 적절한 현지 자원들이 발굴되게 하소서.

3. 주일 예배모임 사역에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하면서 지체들을 일일이 챙기지 못한 결과 형제 두 명이 떠났습니다. 주변 환경의 압력에 굴복한 것 같습니다. 다시금 주일 모임을 두고 주님께 여쭙고 인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장래 정식 교회의 모델로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교회개혁 사역을 내려놓고 저의 일을 '가르치는 (센터) 사역' 중심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인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걸어가는 가운데 바른 판단과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의 기회들도 여전히 열려서 제가 순종하길 바랍니다.

1. 사랑의 밥차 봉사 협력자들이 생기도록
2. 쌀 밀가루 협력교회 단체 생기도록
3. 11 월 빈민촌음악회 주님 영광 나타내도록
4. 모든 열방 언제 어디서든 주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자 되도록
5. 빈촌 집짓기 준비 중입니다



|| 캄보디아

|| 송찬송 선교사



|| GBT 선교회

|| 엄천영 안수아 선교사

1. 건강하게 온 가족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학교가 결정되어짐에 감사드립니다.
2. 적극적으로 삶에 임하며, 이곳에서 만나는 공동체에서의 유익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3. 해나, 리나가 학교에서 귀한 것들을 배우며 즐겁게 생활하고, 요한이가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4. 파송교회의 여름 수련회와 비전트립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발견하며, 교회의 비전이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5. 파송교회인 서문교회와 협력교회와 단체 (오산 서문교회, 유니버설 케어)가 주안에서 부흥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성장해가기를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ANCA)



1. 한국인 사역자들과 북미권에서 오신 사역자들간의 지역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뛰어 넘어 하나님 나라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한 마음이 되어 이 어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안에 연합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저희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생긴 이후 많은 자녀들이 저희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MK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모든 자녀들을 다 품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는 각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분들이 일어 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선교지에서 들어오는 선교사자녀들을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게 품는 ANCA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저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저희 기관에 소속한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분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게 하시어 세월을 아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 부으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A국 김아굴라 / 최브리스길라 선교사



1. 계속 추방되고 있는 A 국에 더 많은 사역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남아 있는 소수의 사역자들 이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2. J 지역에 세워진 마르카즈공동체(집시교회)에 리더로 세워진 메로치를 중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일원들이 가난하고 천대받는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J 지역과 A 국의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쳐나길

3. 미래의 꿈나무 산알 (16 세)이 새학기를
맞이하여 새로 만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한국기업에 취직하
바호드르와 알리세르가 열심히 성실히 일을
잘하고 신앙도 잘 자라날 수 있길,
아지스,악사나부부가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4. A 시의 옥담아저씨 (7 년째 중풍으로 누워
계심 ,세례받음) 가정을 통하여 모든 친척들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MP3 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아저씨를 통해
그의 모든 자녀들이(세 아들과 자부들, 딸
들과 사위들, 손자 손녀들) 말씀으로 양육
되어지도록, 특히 최근에 영접한 둘째 아들
보hil과 며느리 나르기자(9 년째 아이없음)에게
자녀를 주시기를, 부카의 바호드르,막투바
부부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 그 중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특히 막투바(안구돌출증)
건강이 회복되고 새로운 자녀를 주시도록

5. 안식년으로 11 월초까지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재충전을 하고 더 많은 동역자를
만들고 이곳의 상황들을 한국에 잘 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저희가 현지에 없는
동안에 두 마르카즈 공동체(T 시,, J 지역)가
견고하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6. 예지,인지가 여름 방학 동안 한국에서
지내다가 다시 키르키즈 비쉬켄으로 돌아
갔습니다.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원지 현지가 부모와 함께 안식년 동안
한국에서 좋은 만남과 교제를 갖고 새로운
문화와 변화된 환경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섭취하여 가족공동체의 소중함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특히 한국어와 한국사를 보충할 수
있도록.

Universal Care 소식 및 기도제목

1. Universal Care 선교회지 2013 가을호 출간

2012 년도 "Universal Care" 선교회지 가을호
(통권 12 호)가 출간되었습니다. 선교회지가
필요하신 분 들은 연락 주시면 책자나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12 러시아 연해주 아웃리치

Universal Care 는 2012 년 9 월 29 일(토) ~
10 월 3 일(수) 4 박 5 일의 일정으로
월드와이드 미션 주최의 러시아 연해주
아웃리치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본회 후원
선교사인 정태화 선교사님의 사역지에서 교회
개척과 전도집회, 무료진료를 감당할 때 그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길 소원합니다.

3. U 국 김아굴라, 최브리스길라 선교사 후원

2012 년 8 월부터 김아굴라, 최브리스길라
선교사(인터콥 파송)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복음의 실크로드를 따라
행진하는 우리 선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4. 몽골 신학생 Universal Care 장학생 선정

에르덴 호익 전도사님 졸업후 몽골 장로교 신학교의 나랑체첵, 트무르 전도사 (보르항니 지구르 교회), 선교 신학교의 앙크체첵 전도사님 (쇼브링 파브릭스 교회)이 UC 선교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 Universal Care 열방 기도회

(토요일 오전 7 시)

매주 세계 선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신 vision 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매주 토요일 아침 7 시 연세 U 치과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 후원 계좌 안내

신한 110-302-594082 예금주 : 최혜원

7. 선교사 동정

- 1)몽골 황필남 선교사님께서 몽골에서의 여름사역을 은혜가운데 마치고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출국 하셨습니다. 한국에 체류하시는 동안 연세 U 치과에서 치과치료를 받으셨습니다.
- 2) 정태화 선교사님 가족이 한국 방문 후 여름사역을 위해 7 월말 연해주로 다시 돌아 가셨습니다.
- 3) 러시아 김우섭 선교사님께서 파송 교단(고려)의 후원으로 신학교 부지를 매입하셨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건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8. 제 13 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일시 : 2012 년 9 월 8 일(토) 오후 5 시 30 분

장소 : 월드와이드교회 6 층 로템홀

강사 : 원두우선교사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황영석, 윤금희, 홍성훈, 정경미, 김세웅
신보균, 주혜숙 권현주, 정진호, 최혜원
최미영 연세U치과, 이레엠티주식회사
송도 맑은샘 음악학원
장소후원 : 월드와이드교회

기도제목

1.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를 돕는 요셉의 창고를 허락하여 주소서.
2.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3.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전세계를 감당하는 선교회 되게 하소서.
4. 100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게 하소서.
5. Universal Care 를 통하여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Network 가 형성되게 하소서.
6. 2012 년 사역 계획 위에 주의 기름부음을 주소서
7. 북한 땅에 우상을 헐어내고, 그 곳에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 는 2009 년 6 월 23 일 첫 정기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Universal Care 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도구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조력하여 그들의 사역과 삶을 돕고 살피며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네트워킹하여 하나님의 재화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창고'의 역할을 하는 선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현재, Universal Care 는 몽골 황필남 선교사, 러시아 김우섭 선교사를 비롯한 9 명의 선교사와 2 개의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있으며, 몽골 장로교 연합신학교 나랑체책, 트무르 전도사, 선교신학대학교 앵크 체책 전도사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원은 선교사들과 영적, 물질 관계의 끈을 잇는 최소한의 표현이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사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같은 눈으로, 선교지를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Universal Care 는 이렇게 일할 것입니다.

첫째, 단기 Outreach 를 통하여 선교사의 교회개척 사역에 헌신할 것입니다. 이 Outreach 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육, 찬양, 의료, 금홍사역 등 모든 장르의 달란트로 종합적인 선교의 동역자로 설 것입니다.

둘째, 선교사 자녀를 위한 MK(Missionary Kids)를 위한 사역자가 계속하여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단기간의 한글 교육, 또한 뮤직 캠프, 등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사역은 선교사로 하여금 더욱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차세대의 준비된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선교사를 위한 Guest House 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물론, 독립적인 건물을 가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방 하나를 단기 입국한 선교사에게 내어 드리는 것도 귀한 나눔과 섬김일 수 있습니다.

넷째, 선교지에 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선교지를 좀더 안정적으로 Support 하며, 그 민족의 리더십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예배를 통해 선교 헌신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한국 교회에 선교의 불을 더욱 크게 지피는 것입니다. 이것의 하나의 모습이 바로 Mission Conference 이기도 합니다. 매 분기(3,6,9,12 월)마다 드려지는 예배는 열린예배로 선교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6)

이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제13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찬양인도 : 홍성훈 목사

강사 : 원두우 목사

이스라엘 선교사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 : 20)

후원선교사

황필남 선교사 (몽골) www.pnhwang.com

김우섭 선교사 (러시아)

배성호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www.josephbae.com

정태화 선교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신동주 선교사 (필리핀 앙겔레스), 주바울 선교사 (B국)

엄천영 선교사 (GBT 선교회), 송찬송 선교사(캄보디아)

김아굴라선교사 (A국)

디아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ANCA) – MK 국제 학교

Universal Care 장학금

: 몽골 장로교 신학교 트무르, 나랑체첵 전도사

몽골 선교신학대학 : 앵크체첵 전도사

Universal Care

www.cyworld.com/universalcare